

17

AGRICULTURAL OUTLOOK 2024 KOREA

제 17 장 한육우, 돼지, 젓소 수급 동향과 전망

강지석*·지선우**·김충현***·정진주****·조수민*****

1. 한육우

- 1.1. 소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 1.2. 소고기 대내외 생산 여건 변화
- 1.3.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2. 돼지

- 2.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 2.2. 돼지고기 대내외 생산 여건 변화
- 2.3.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3. 젓소

- 3.1. 젓소 사육 및 원유 수급 동향
- 3.2. 원유 및 유제품 대내외 생산 여건 변화
- 3.3. 원유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jska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bsn02@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goldbl@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pearlj@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suminc@krei.re.kr

요 약

1) 한육우

- 2023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364만 6천 마리로 2022년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이중 한우 마릿수는 350만 2천 마리로 추정된다.
- 2023년 한우고기(거세우)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가 늘어 한우 공급량 증가영향 등으로 2022년 대비 11.3% 하락한 18,619원/지육kg이었다.
- 2024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년 정액판매량 및 송아지 생산 마릿수 감소, 도축 마릿수 증가 등으로 2023년 대비 4.6% 감소한 334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4년에 도축 가능한 18개월 이상 수소 사육 마릿수는 64만 8천 마리로 2023년 대비 9.7%, 평년 대비 24.0% 증가하여 2024년 수소 도축 마릿수는 2023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 거세우 중심으로 도축 가능 개체 마릿수가 많아 2024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023년 대비 8.3% 증가한 32만 8천 톤으로 예측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2024년 한우고기(거세우) 도매가격은 2023년보다 하락한 1만 8천 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2) 돼지

- 2023년 도축 마릿수는 모돈 감소에도 생산성 향상으로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여 2022년 대비 1.1% 증가한 1,875만 마리였다. 2023년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22년 대비 1.0% 증가한 111만 8천 톤이었다.
- 2023년 돼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2022년 5,227원/kg(탕박, 제주도 제외) 대비 1.8% 하락한 5,134원이었다.
- 2024년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돈감소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1% 감소한 1,120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3년 11월 말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를 분석하면, 2024년 1월 출하되는 11월 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ASF 발생으로 도축이 지연되었던 2022년 대비 0.6% 감소하였으나 2~5월까지 출하되는 자돈·육성돈 사육 마릿수는 모든 생산성 향상으로 1.8%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2024년 1~5월 도축 마릿수는 2023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9월은 모든 감소 영향과 작업일수 감소로 2023년 대비 2.2% 감소하며, 10월 이후는 모든 감소 영향으로 2023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024년 연간 도축 마릿수는 2023년 대비 0.6% 감소한 1,865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2023년 대비 0.6% 감소한 111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돼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감소하나 재고포함 국내산 공급량이 2023년과 비슷하여 2023년 수준인 5,100~5,300원/kg으로 예상된다.

3) 젓소

- 2023년 젓소 사육 마릿수는 2022년 대비 0.8% 감소한 38만 7천 마리였다. 2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2022년 대비 5.3% 감소한 14만 1천 마리였고,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2022년 대비 2.1% 증가한 24만 6천 마리였다.
- 2023년 원유 생산량은 착유우 마릿수가 증가하였으나 사료 수급 여건 불안정, 여름철의 폭염일수 증가 등으로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이 감소하여 2022년 대비 2.3% 감소한 193만 톤으로 추정된다.
- 2024년 젓소 사육 마릿수는 소규모 농가의 폐업, 전업화, 규모화의 영향으로 2023년 대비 2.0% 감소한 37만 9천 마리로 전망되며, 착유우 사육 마릿수는 2023년 대비 2.2% 감소한 1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4년 원유 생산량은 기상 조건과 조사료 수급 여건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2023년 대비 0.4% 증가한 193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01 한육우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1. 소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1.1.1. 한육우 사육 동향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14년 이후 번식과 비육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2016년 이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3.9%씩 증가하여 2022년에는 372만 7천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3년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암소 비육 지원사업과 송아지 생산 감소로 전년보다 2.2% 감소한 364만 6천 마리로 추정된다. 이 중 한우 마릿수는 350만 2천 마리로 추정된다.
 - 2023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는 입식의향 감소에 따른 2022년 정액 판매 감소로 전년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가임암소 마릿수는 암소 도축이 증가하였으나 누적된 입식 마릿수가 많아 전년보다 소폭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육우 사육 마릿수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젖소 사육 마릿수가 줄어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증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육 농장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에는 8만 8천 개소 수준으로 추정된다.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보다 농장수 감소폭이 더 커 전년 대비 0.7마리 증가한 41.4마리였다. 한우농가의 전업화, 규모화, 일관사육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 농장 규모별 사육 마릿수를 살펴보면, 20마리 미만 농장 사육 마릿수 비중은 전년 (10.1%)보다 0.6%p 하락한 9.5%, 50마리 이상 전업 농장은 전년(67.8%)보다 0.9%p 상승한 68.7%였다.

표 17-1. 한육우 사육 동향

단위: 천 마리, 천 농장, 마리

구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육우 사육 마릿수	3,646	3,727	3,406	-2.2	7.1
한우	3,502	3,557	3,240	-1.5	8.1
1세 미만	936	1,028	959	-9.0	-2.4
1~2세	1,016	997	899	1.9	12.9
2세 이상	1,551	1,532	1,383	1.2	12.2
가임암소	1,696	1,694	1,554	0.2	9.2
육우	143	169	165	-15.3	-13.2
한육우 사육 농장수	88	92	94	-3.9	-6.1
농장당 사육 마릿수	41.4	40.7	36.4	1.8	13.9

주 1) 사육 마릿수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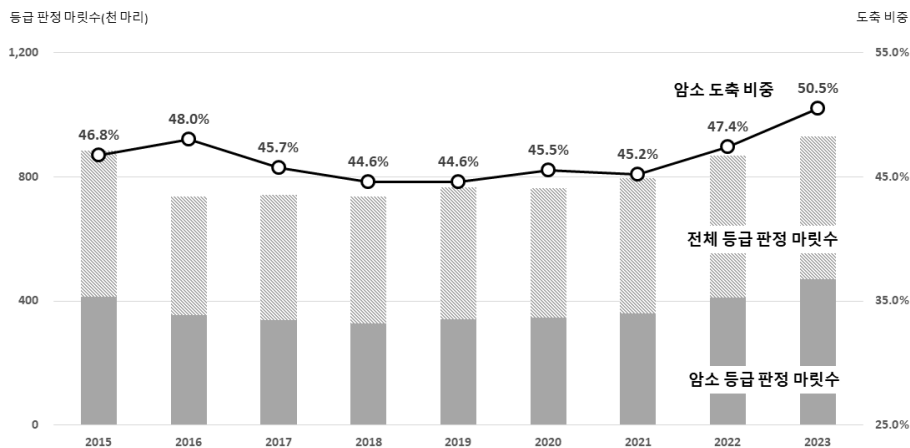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 암소 도축 비중은 2016년 이후 2021년까지 가격 호조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2년에는 가격 하락으로 2021년 대비 2.2%p 상승하였다. 2023년 암소 도축 비중은 암소 비육 지원사업과 한우고기 도매가격 및 산지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번식의향이 감소해 전년 대비 3.1%p 상승한 50.5%였다.

그림 17-1. 한우 암소 도축 비중 추이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1.2. 소고기 수급 동향

- 2023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등급 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95만 2천 마리) 대비 6.1%, 평년 대비 19.1% 증가한 101만 마리였다.
 - 한우 도축 마릿수는 92만 9천 마리였으며 그중 한우 수소(거세우 포함)는 46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평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한편 암소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46만 9천 마리였다. 한우 가격 하락 및 암소 비육지원사업 영향 등으로 암소 도축 마릿수는 수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육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8만 1천 마리였다.
- 거세우 출하월령은 등급제 개편과 한우 가격 호조 등으로 단축되는 추세였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하자 등급 출현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기간을 연장하는 농장이 증가하여 2023년 출하월령은 전년(30.6개월)보다 0.5개월 증가한 31.1개월이었다. 또한 도체중량도 전년 대비 1.3% 증가한 467kg이었다.
 - 2023년 거세우 1⁺⁺등급 출현율은 전년보다 0.7%p 상승하였다.

표 17-2. 한육우 등급 판정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마리, kg, 개월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육우 등급 판정 마릿수	1,010	952	848	6.1	19.1
한우 암소	469	412	349	13.9	34.5
한우 수소	460	457	425	0.6	8.2
육우	81	83	74	-2.1	9.1
거세우 도체중량	467	461	449	1.3	4.0
거세우 평균 출하월령	31.1	30.6	30.3	1.6	2.4

주: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3년 소고기 공급량은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입량은 감소해 전년(76만 5천 톤) 대비 1.0% 감소한 75만 7천 톤이었다.
- 2023년 국내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와 도체 중량 증가로 전년(28만 8천 톤) 대비 5.1%, 평년(25만 3천 톤) 대비 20.0% 증가한 30만 3천 톤이었다.

- 2023년 소고기 수입량은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과 주요 수입국 생산량 감소로 전년(47만 7천 톤) 대비 4.8% 감소한 45만 4천 톤이었다.
 - 수입 소고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미국산이 50.6%로 여전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나 미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 등으로 수출량이 줄어 전년보다 4.7%p 하락하였다. 반면, 사육 여건 개선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호주산이 41.4%로 전년보다 7.4%p 상승하였으며, 뉴질랜드는 4.1%로 0.8%p 하락하였다.
- 2023년 소고기 자급률은 국내산 공급 확대와 수입량 감소로 전년보다 2.3%p 상승한 40.0%였으나, 공급량 감소로 1인당 소비가능량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14.8kg으로 추정된다.

표 17-3. 소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정육 기준), %, kg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공급량	757	765	686	-1.0	10.4
국내 생산량	303	288	253	5.1	20.0
수입량	454	477	433	-4.8	4.8
자급률	40.0	37.7	36.8	6.3	8.7
1인당 소비가능량	14.8	14.9	13.2	-0.8	11.7

주 1) 자급률 = 국산 소고기 생산량 ÷ 소고기 총 소비량 × 100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3년 12월 말 기준 소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39.1% 감소한 3,295톤으로 추정된다. 2023년 수요 촉진 행사 영향뿐만 아니라 2022년 한우의 날 행사 취소로 인한 재고 증가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부위별로 살펴보면 구이류 재고량은 전년(2,181톤) 대비 20.0% 감소한 1,745톤, 정육류 재고량은 전년(3,230톤) 대비 52.0% 감소한 1,550톤으로 추정된다.

표 17-4. 한우고기 재고 동향(12월 말 기준 추정치)

단위: 톤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증감률(%)	
				'22년 대비	'21년 대비
총 재고량	3,295	5,411	3,559	-39.1	-7.4
구이류	1,745	2,181	1,417	-20.0	23.1
정육류	1,550	3,230	2,142	-52.0	-27.6

자료: 한우자조금 한우고기 유통동향 모니터링

1.1.3. 한우 산지가격 및 소고기 가격

- 2023년 송아지 가격은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입식의향이 낮아져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암송아지는 전년 대비 18.3% 하락한 224만 원, 수송아지는 11.5% 하락한 342만 원이었다.
- 암소(600kg) 가격은 지난해에 이어 번식의향 감소로 전년 대비 16.0% 하락한 467만 원이었으며, 수소는 28.7% 하락한 359만 원이었다.

표 17-5. 한우 산지가격 동향

단위: 만 원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등락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암송아지	224	274	326	-18.3	-31.4
수송아지	342	386	403	-11.5	-15.2
암소	467	556	581	-16.0	-19.6
수소	359	503	532	-28.7	-32.6

주 1) 송아지 가격은 6~7개월령 기준이며, 큰소 가격은 600kg 기준임.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협 축산정보센터

- 2023년 한우고기 거세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 8,619원으로 전년 대비 11.3% 하락하였다. 등급별로 살펴보면 등급이 낮을수록 하락폭이 더 컸다. 한우 가격 하락 영향으로 육우 가격 또한 전년 대비 11.6% 하락한 9,646원이었다.

표 17-6. 한육우 등급별 도매가격(거세우) 동향

단위: 원/kg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등락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평균	18,619	20,980	20,446	-11.3	-8.9
1 ⁺⁺ 등급	21,258	23,656	22,684	-10.1	-6.3
1 ⁺ 등급	18,219	20,771	20,704	-12.3	-12.0
1등급	16,380	18,818	19,065	-13.0	-14.1
2등급	13,088	15,079	15,673	-13.2	-16.5
3등급	8,950	10,463	12,100	-14.5	-26.0
육우	9,646	10,910	10,846	-11.6	-11.1

주: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3년 한우 등급별 출현율을 살펴보면 1⁺⁺등급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등급, 1등급 순이었다. 다만 전년과 비교하면 1⁺⁺, 1⁺등급은 전년보다 각각 0.3%p, 0.6%p 하락하였고 1등급 이하는 증가하였다.
 - 고등급 출현율이 감소한 이유는 거세우 1⁺이상 등급 출현율은 전년보다 0.3%p 상승하였으나, 고등급 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암소 도축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여진다.

표 17-7. 한우 등급별 출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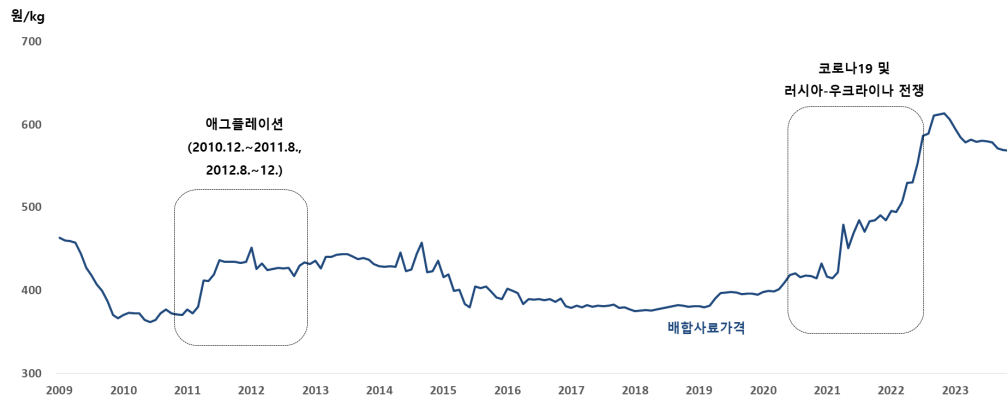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차이(%p)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 ⁺⁺ 등급	25.3	25.6	20.7	-0.3	4.6
1 ⁺ 등급	24.8	25.3	26.5	-0.6	-1.8
1등급	24.6	24.3	27.1	0.3	-2.6
2등급	17.2	17.0	18.1	0.2	-0.9
3등급	7.9	7.6	7.3	0.3	0.6

주: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3년 1~11월 고기소 배합사료 평균 가격은 kg당 579원으로 전년 대비 3.3% 상승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및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2022년 말까지 국제 곡물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였다. 2022년 4분기 국제 곡물 공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고 이 시기에 구입한 물량이 도입되면서 2023년 7월부터 고기소 배합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다.
- 사료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후 곡물 가격 상승폭이 커 여전히 한우 농가 경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이는 한우고기 도매가격을 비롯한 산지가격 하락과 맞물려 입식 및 번식 의향이 감소해 암소 도태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17-2. 고기소 배합사료 가격 동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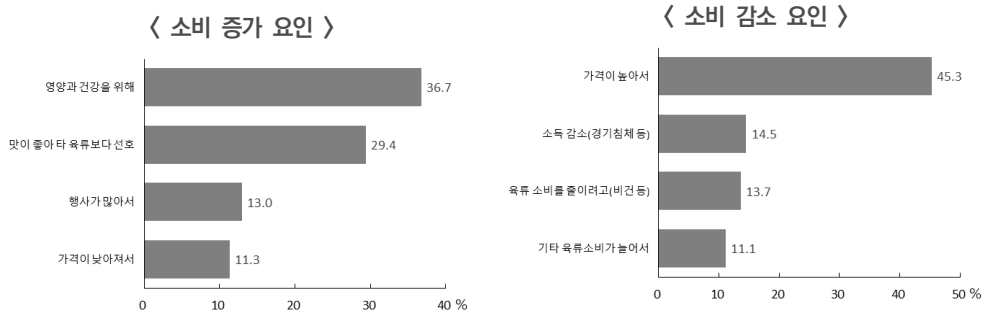
1.1.4. 소고기 소비행태 분석

-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¹⁾ 2023년 5월 구제역, 10월 렘피스킨 발생 이후 발생 전보다 소고기 소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자는 각각 2.0%, 5.6%, 감소하였다는 소비자는 19.3%, 21.1%였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자는 78.7%, 73.3%로 조사되었다.

1) 농업관측센터 소비자패널 554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1~26일 6일간 온라인으로 국산 및 수입 육류의 소비 비중, 2024년 육류 구매의향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소고기 소비가 감소한 이유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우려’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 혹은 변함없음에 대한 이유는 ‘국산 축산물 안전성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다. ‘가축 질병 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16.9%로 나타났다.
- 2023년 국내산 소고기 구매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수입 소고기 구매는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득수준별 구매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산의 경우 2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는 1.2% 감소하였으나, 200~400만 원 미만 4.3%, 400~600만 원 미만 0.8%,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입 소고기 구매의 경우 200만 원 미만 가구가 9.0% 감소하였으며, 200~400만 원 미만 가구가 5.3%, 400~6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와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는 각각 0.8%, 1.3%씩 감소하였다.
- 소고기 구매 증가 이유로는 ‘영양과 건강을 위해서’가 36.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맛이 좋아서’가 29.4%로 나타났다. ‘행사가 많아서’, ‘가격이 낮아져서’라는 응답도 각각 13.0%, 11.3%로 조사되었다.
 - 한우의 맛과 영양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3년 한우 수급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수요 촉진 행사는 소비자의 한우 소비 증가요인으로 파악된다.
- 한편, 구매 감소 이유로는 ‘소고기 가격이 높아서’가 4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소득감소(경기침체 등)’가 14.5%, ‘육류 소비를 줄이려고’가 13.7% 순으로 나타났다.
 - 한우고기 도매가격 하락 및 수요 촉진 행사 추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체감하는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7-3. 소고기 소비량 변화 요인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한우와 수입 소고기 등심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WTP) 조사 결과, 한우는 100g당 1⁺등급 1만 672원, 1등급 9,330원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소고기는 냉장 100g당 호주산 6,028원, 미국산 5,607원으로 나타났다.
 - 한우 고기에 대한 소비자 지불의향은 미국산 소고기에 비해 1.28~1.90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입 소고기 사이에서는 호주산 소고기가 미국산보다 1.08배 지불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7-8. 한우고기와 수입 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 금액

구 분	한우 1 ⁺ 등급	한우 1등급	한우 2등급	호주산	미국산
지불의사금액(100g당)	10,672원	9,330원	7,198원	6,028원	5,607원
미국산 대비 지불의향 수준	1.90배	1.66배	1.28배	1.08배	-

주: 한우고기와 수입 소고기는 냉장 등심 기준으로 조사함.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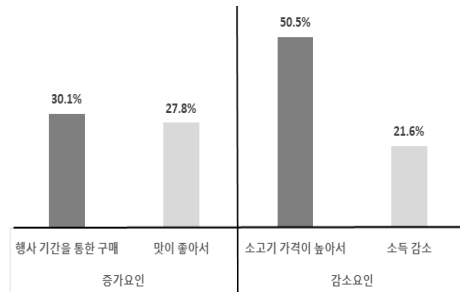
- 2024년 국산 소고기 구매 의향은 전년보다 0.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입 소고기의 경우 5.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수준별 구매 의향 변화를 살펴보면 국내산의 경우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는 2.5% 줄일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200~400만 원 미만은 0.9%, 400~600만 원 미만은 0.8%, 600만 원 이상은 0.6% 줄일 것으로 응답하였다.

- 수입 소고기의 경우 200~400만 원 미만인 9.5%로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이어 200만 원 미만이 7.3%, 600만 원 이상 소득 가구가 4.5%, 400~600만 원 미만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국산 소고기 구매 의향 증가 요인으로는 ‘행사 기간을 통한 구매’가 30.1%로 가장 많았으며, ‘맛이 타육류보다 좋아서’가 27.8%로 그 뒤를 이었다. 감소 요인의 경우, ‘소고기 가격이 높아져서’가 50.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소득감소’가 21.6%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가 체감하는 국산 소고기 가격은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행사 등을 통한 가격 할인시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7-9. 2024년 소고기 구매의향 조사 결과

소득수준	국내산(%)	수입(%)
200만 원 미만	-2.5	-7.3
200~400만 원 미만	-0.9	-9.5
400~600만 원 미만	-0.8	-1.6
600만원 이상	-0.6	-4.5

그림 17-4. 국산 소고기 구매의향 변화요인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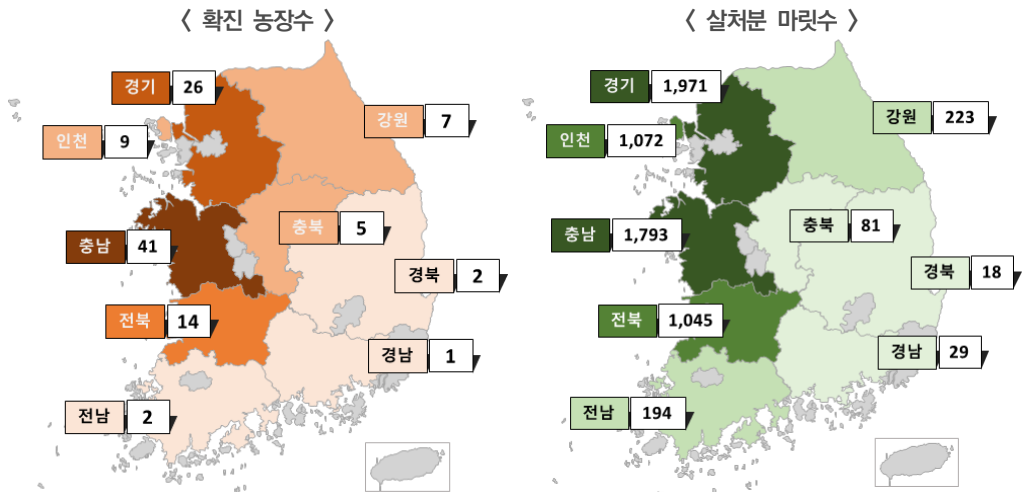
1.2. 소고기 대내외 생산 여건 변화

1.2.1.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수급 변화

- 2023년 5월 10일, 충북 청주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다. 이번 구제역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발생하였으며, 총 발생 건수는 11건, 이중 한우 농장에서 10건이 발생하였다.
 - 2023년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가축 전체에 긴급 백신접종이 실시되었으며, 5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발생은 없었다. 매몰 처분된 우제류 마릿수는 1,571마리이며 이중 한우는 1,510마리였다.

- 2023년 10월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 농장에서 림피스킨(Lumpy Skin Disease, LSD)이 국내 최초로 발생하였다. 이후 경기, 인천 강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제주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발생하였다. 총 107건이 9개 시도, 34개 시군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한우 81건, 젖소 23건, 육우 3건이었다.
- 림피스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하였다. 매몰 처분된 소 마릿수는 6,426마리였으며 이중 한우는 4,065마리, 젖소 1,683마리, 육우 678마리였다. 11월 20일 이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농식품부는 12월 21일 방역대를 해제하였다.

그림 17-5. 시도별 림피스킨 확진 농장 및 살처분 마릿수(2024년 1월 4일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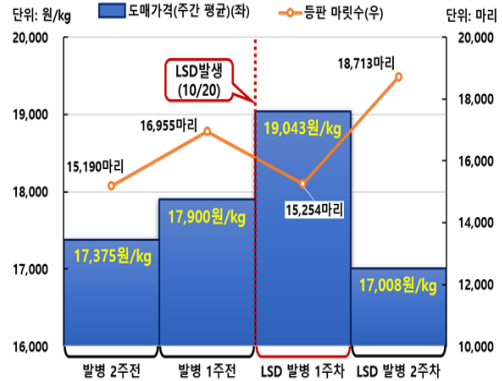
- 림피스킨 발생으로 전국 단위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수급 차질로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 림피스킨 발병 1주 차(10/20~26) 한우 등급 판정 마릿수는 발병 1주 전 동기간(10/13~19) 대비 10.0% 감소한 1만 5,254마리였다. 림피스킨 발병 1주 차 한우고기 도매가격(전체 평균)은 발병 1주 전 동기간(10/13~19) 대비 6.4% 상승한 kg당 1만 9,043원에 형성되었다. 이는 등급 판정 마릿수 감소와 더불어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행사 준비를 위한 유통 업체 물량 확보 수요 영향으로 파악된다.

-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이후, 도축 물량이 회복되면서 림피스킨 발병 2주 차(10/27~11/2) 등급 판정 마릿수는 발병 1주 차 동기간(10/20~26) 대비 22.7% 증가한 1만 8,713마리였다. 림피스킨 발병 2주 차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발병 1주 차 동기간 대비 10.7% 하락한 1만 7,008원에 형성되었다.

표17-10. LSD 발병 전·후 요일별 도매가격 및 등판 마릿수 그림 17-6. LSD 발병 전·후 도매가격 및 등판 마릿수

단위: 원/kg, 마리

구분		화	수	목
발병 전	10월 2주 (10.6~12)	도매가격 17,430	17,348	17,332
		등판 마릿수 3,528	4,906	3,774
발병 후	10월 3주 (10.13~19)	도매가격 17,723	18,179	17,929
		등판 마릿수 5,092	4,647	4,022
발병 전	10월 4주 (10.20~26)	도매가격 20,053	19,365	18,499
		등판 마릿수 3,510	3,411	4,843
발병 후	10월 5주 (10.27~11.2)	도매가격 17,366	16,944	16,303
		등판 마릿수 4,916	4,674	4,270



- 주 1) 월요일은 금요일에 도축한 자육이 상장됨에 따라 거래물량도 적고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개체가 많아 정상 거래일에 비해 도매가격이 낮게 형성됨에 따라 정상 거래일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가격을 비교함.
- 2) ‘발병 2주 전(10월 6~12일)’은 휴일이 1일(한글날, 10월 9일) 포함되어 등급 판정 마릿수(도축장 출하 마릿수)가 감소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2.2. 국내 여건 변화

- 2022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355만 7천 마리로 역대 최대 마릿수를 기록하였으며, 등급 판정 마릿수는 86만 9천 마리였다. 한우고기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고, 국제 곡물 수급 불안에 따른 사료비 상승까지 겹치며 농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2023년 사육 마릿수는 감소국면을 맞게 되었다. 2023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350만 2천 마리로 추정된다.

- 2022년 이후 한우 공급량은 증가한 반면, 고금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수요는 감소하여 한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번식 및 입식의향이 감소하였으며 사육 마릿수는 감소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가임암소는 전년 대비 0.2% 증가한 169만 6천 마리이며, 2세 이상 수소(거세우 포함)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29만 6천 마리로 추정된다.
- 2024년 사육 마릿수는 2023년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지겠으나, 누적된 입식 마릿수가 많아 도축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한우 도매가격은 등급 판정 마릿수 증가와 함께 가계 부채와 고물가 상황 등으로 소비 여력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 측면에서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거세우 계획 출하, 저능력 암소 선제적 도태, 송아지 생산 및 입식 조절이 필요하며, 소비 측면에서는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표 17-11. 한우 사육 변화와 도매가격 동향

단위: 천 마리, %, 원/사육kg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감소국면			증가국면							감소국면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1년차	
한우 사육	마릿수	2,904	2,769	2,810	2,871	2,962	3,078	3,227	3,415	3,557	3,502	
	증감률	-5.6	-4.7	1.5	2.2	3.1	3.9	4.8	5.8	4.2	-1.5	
가임 암소	마릿수	1,387	1,332	1,346	1,372	1,427	1,484	1,548	1,631	1,694	1,696	
	증감률	-5.3	-4.0	1.2	1.9	4.0	4.0	4.3	5.4	3.8	0.2	
등급판정 마릿수	마릿수	921	884	737	743	736	765	763	794	869	929	
	증감률	-4.0	-4.1	-16.5	0.7	-0.8	3.9	-0.3	4.1	9.4	6.9	
한우(거세우) 평균가격		14,985	16,855	18,941	17,710	18,735	19,116	21,241	22,667	20,980	18,619	

주 1) 사육 마릿수와 가임암소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2) 2023년 사육 마릿수와 가임암소는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중앙회, KREI 농업관측센터

1.2.3. 해외 소고기 수급 전망²⁾

- 2024년 세계 소고기 생산량은 최대 소고기 생산국인 미국의 소고기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5,913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미국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한 1,152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육 마릿수는 2023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도축 가능한 개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6% 감소한 129만 톤으로 전망된다.
- 호주는 가뭄으로 인한 조기 도축, 가격 하락으로 인한 암소 도축 증가세가 2024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25만 톤으로 예측된다. 생산량 증가로 수출량은 전년 대비 5% 증가한 160만 톤으로 전망된다.
 - 호주산 소고기의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118만 톤으로 예상되며, 자국 소고기 생산량이 전년 대비 3% 증가하면서 수입량은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12. 미국, 호주, 중국의 소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 분	미국			호주			중국			
	2024년	2023년	평년	2024년	2023년	평년	2024년	2023년	평년	
공급	생산	11,520	12,291	12,501	2,250	2,170	2,063	7,700	7,500	6,942
	수입	1,656	1,641	1,522	24	24	22	3,500	3,600	3,085
	소계	13,176	13,932	14,023	2,274	2,194	4,468	11,200	11,100	10,027
수요	소비	11,886	12,612	12,616	674	664	664	11,180	11,080	10,009
	수출	1,290	1,376	1,438	1,600	1,530	1,431	20	20	19
	소계	13,176	13,988	14,054	2,274	2,194	2,095	11,200	11,100	10,028

자료: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0.)

2) 미농무부(USDA)에서 작성한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0.)를 참조·인용하여 작성함.

- 2024년 수입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관세와 환율이 하락하나, 소고기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수입 단가가 상승해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소고기의 국내 도매원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kg당 1만 3,335원, 호주산은 2.2% 상승한 1만 1,103원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2012년)와 한·호주 FTA(2014년)에 의해 2024년 미국산 및 호주산 소고기 관세는 전년 대비 각각 2.7%p 인하된 5.3%, 10.7%가 적용된다(철폐 시기는 미국산 2026년, 호주산 2028년).
- 2025년 이후 도매원가는 수입단가가 상승하나, 환율 하락과 관세 인하 등으로 2024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도매원가는 관세 제로와 환율 하락,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미국산 1만 734원, 호주산 8,542원으로 전망된다. 이후 수입단가 영향 등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해 2033년은 미국산 1만 1,101원, 호주산 8,834원으로 예측된다.

표 17-13. 수입 소고기 도매가격 전망

구 분		2023년	전망			
			단기		중장기	
			2024년	2025년	2028년	2033년
환율(원/US\$)		1,308	1,291	1,240	1,203	1,192
수입단가 (\$/kg)	미국	8.5	9.0	9.0	8.1	8.5
	호주	6.7	7.1	7.2	6.5	6.7
관세율 (%)	미국	8.0	5.3	2.7	0.0	0.0
	호주	13.3	10.7	8.0	0.0	0.0
도매원가 (원/kg)	미국	13,055	13,335	12,566	10,734	11,101
	호주	10,859	11,103	10,473	8,542	8,834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23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3) 도매원가는 수입단가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1.3.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1.3.1. 소이력 정보를 이용한 한육우 사육 및 도축 전망

- 소이력정보(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2022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357만 7천 마리였다.
- 2024년 한육우 도축 마릿수는 거세우를 중심으로 출하 가능한 마릿수가 증가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사육 마릿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1세 미만 마릿수가 감소하고, 도축도 늘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암소의 경우, 향후 10개월 내에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2024년 가임암소(15개월령 이상)는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 평년 대비 8.9% 증가한 168만 8천 마리였다. 가임암소는 전년 대비 0.5% 증가하나, 육성우는 전년 대비 10.2% 감소해 2024년 한우 암소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수소의 경우, 2024년에 도축 가능한 18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64만 8천 마리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 수소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중 6개월 내에 출하가 가능한 25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28만 6천 마리로 전년 대비 19.6%, 평년 대비 42.5% 증가하였다.
 - 2025년에 도축이 예상되는 7~17개월 육성우는 전년 대비 7.3% 감소해 도축 마릿수 정점은 2024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육우의 경우, 2024년에 도축 가능한 12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8만 2천 마리로 전년 대비 11.5% 감소해 2024년 육우 도축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6개월 내에 출하가 가능한 15개월 이상 사육 마릿수는 6만 7천 마리로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다. 2025년 도축이 예상되는 7~11개월 육성우는 전년 대비 19.4% 감소해 육우 도축 마릿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17-14. 소이력정보를 활용한 한육우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천 마리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한우 암소	송아지	1~6개월	157	176	167	-10.9	-6.1
	육성우	7~14개월	324	361	333	-10.2	-2.8
	가임암소	15개월 이상	1,688	1,680	1,549	0.5	8.9
	소 계		2,169	2,216	2,049	-2.1	5.8
한우 수소	송아지	1~6개월	170	191	179	-10.7	-5.0
	육성우	7~12개월	289	321	300	-9.8	-3.7
		13~17개월	158	162	140	-2.4	13.1
	비육우	18~24개월	362	352	322	3.0	12.4
		25개월 이상	286	239	201	19.6	42.5
	소 계		1,266	1,265	1,143	0.1	10.8
육우	송아지	1~6개월	37	41	46	-10.4	-20.3
	육성우	7~11개월	24	30	29	-19.4	-17.6
	비육우	12~14개월	14	20	20	-27.6	-26.7
		15개월 이상	67	72	67	-7.1	0.7
	소계		142	163	162	-12.7	-12.0

주 1) 한육우 월령별 사육 마릿수는 매년 12월 말일 기준 소 이력제 자료임.

2) 평년은 2018~2022년의 최소, 최대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1.3.2. 한우 사육 및 도축 전망

- 2024년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 송아지 입식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4.6%, 평년 대비 1.2% 감소한 334만 마리로 전망된다.
 - 1세 미만 마릿수는 2023년 한우 가격 하락 및 가축 질병 발생으로 정액 판매량이 줄어 전년 대비 9.9% 감소한 84만 3천 마리로 전망된다. 1~2세 마릿수는 2023년 송아지 생산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0.0% 감소한 91만 4천 마리로 예측된다. 2세 이상 마릿수는 누적된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158만 4천 마리로 전망된다.

표 17-15. 한우 사육 마릿수 전망(단기)

단위: 천 마리

구분	2024년	2023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전체 마릿수	3,340	3,502	3,382	-4.6	-1.2
1세 미만	843	936	969	-9.9	-13.0
1~2세	914	1,016	948	-10.0	-3.6
2세 이상	1,584	1,551	1,450	2.1	9.2
가임암소	1,675	1,696	1,624	-1.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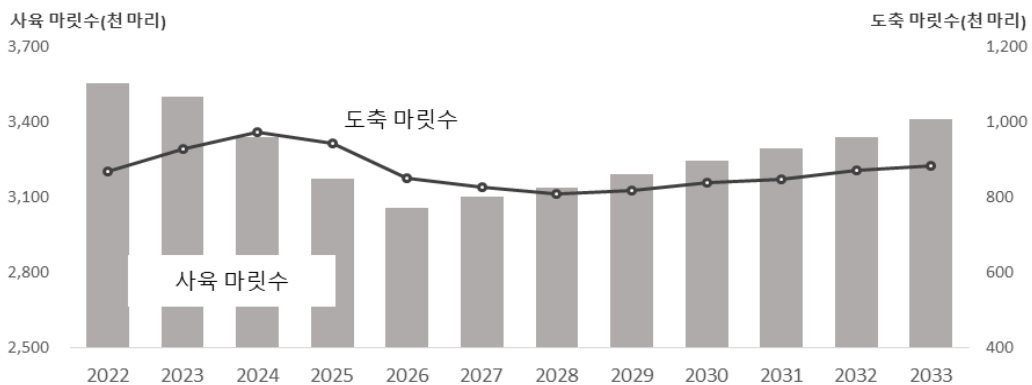
주 1) 사육 마릿수 전망치는 각 년도 12월 1일자 기준임.

2)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 가격 하락에 따른 번식의향 감소, 암소 도축 증가로 사육 마릿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축 마릿수는 누적 입식 마릿수 영향으로 출하 가능 개체수가 많아 전년 대비 4.9% 증가한 97만 5천 마리 수준으로 예측된다.
 - 암소 비육지원사업 약정 이행 등으로 인한 암소 도축 증가 시 2024년 도축 마릿수 및 사육 마릿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사육 마릿수는 2026년 저점 이후 한우 가격 회복에 따른 입식 의향 회복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33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7. 한우 사육 및 도축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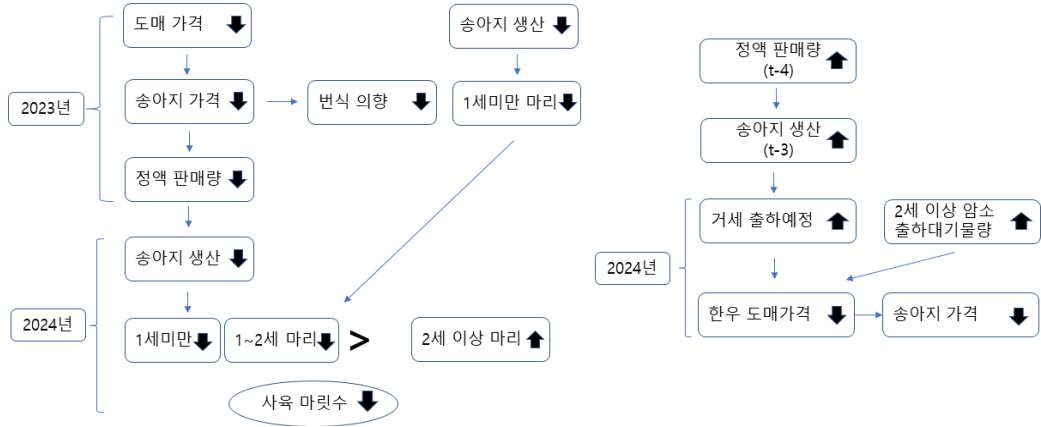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1.3.3.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 (단기 전망) 2024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한 32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출하에 영향을 미치는 2021~2022년 송아지 생산이 늘어 거세우 출하 가능 마릿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암소 사육 마릿수도 누적된 마릿수 영향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 소 이력제 자료(2023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2024년에 출하 가능한 수소(거세우 포함) 마릿수(18개월 이상)는 전년 대비 9.7%, 암소 사육 마릿수는 0.6%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한우 가격은 전년 대비 약세가 예상되며, 암소 도축이 더욱 증가할 경우 생산량이 전망치보다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2024년 소고기 수입량은 관세와 환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국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 단가 상승, 국내 소고기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3% 감소한 44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호주는 조기 도축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겠으나, 미국의 생산량 감소로 전체 수입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4년 소고기 공급량은 수입량이 감소하나, 국내 도축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2.6% 증가한 77만 6천 톤으로 전망되며, 1인당 소비가능량은 15.1kg으로 예상된다. 수입량 감소와 국내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소고기 자급률은 전년보다 2.3%p 상승한 42.3%로 예측된다. 2024년 한우 평균 도매가격(거세우 기준)은 현재 수준의 수요가 유지된다는 가정 시 공급량 증가로 전년 대비 하락한 kg당 1만 8천 원 내외로 전망된다.
 - 정부 수급 안정 정책이 원활하게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유지되는 가격이며, 정책 미추진 시 가격 하락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17-8. 2024년 한우 사육 및 도매가격 전망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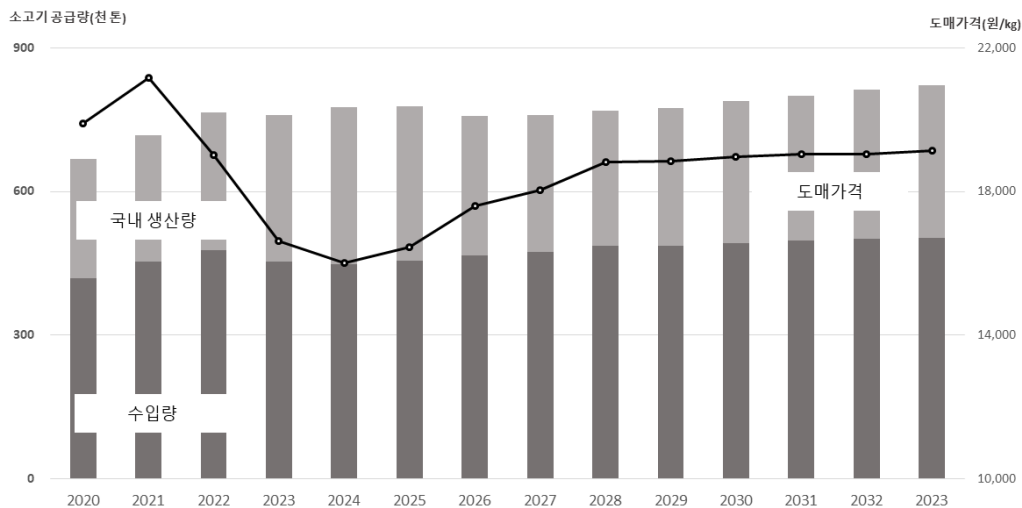


주: t는 기준 연도(2024년)를 의미함.

1.3.4. 중장기 전망

-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024년 정점 이후 사육 마릿수 감소 영향으로 2028년까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국내 소고기 생산량은 28만 2천 톤으로 예측되며 이후 반등하여 2033년 31만 8천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소고기 수입량은 한우고기 도매가격 반등과 환율, 관세 인하 및 단가 하락 영향 등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이어 호주 관세도 철폐되는 2028년 수입량은 48만 7천 톤, 2033년에는 50만 4천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도축 마릿수 정점 이후, 2025년 감소세로 전환되나 2025년 도축 마릿수는 90만 마릿대로 여전히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2025년 한우 평균 도매가격(거세우 기준)은 kg당 1만 8,500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후 사육 마릿수 감소로 도축 가능 개체수가 감소하고 점진적인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어 2028년은 2만 원 내외, 2033년은 2만 1천 원 내외로 전망된다.

그림 17-9. 국내 소고기 공급 및 도매가격(거세우)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 1인당 소비가능량은 소고기 공급량이 증가하는 2025년까지 증가한 후 2028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15.1kg까지 증가하며, 2028년은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 관세가 모두 철폐되어 수입량이 증가하나 국내산 소고기 공급량 감소로 15.0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국내 생산량 및 수입량 증가로 2033년에는 16.2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소고기 자급률은 국내산 소고기 생산량 증가로 2024년 42.3%까지 증가한 이후 사육 마릿수 감소에 따라 2028년 36.6%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이후 관세 철폐 등에 따라 소고기 수입량은 증가하겠으나 국내산 소고기 생산량 증가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자급률은 점진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표 17-16. 소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정육 기준)

구 분	2023년	전 망			
		2024년	2025년	2028년	2033년
총 공급량	757	776	777	769	822
생 산	303	328	322	282	318
수 입	454	448	455	487	504
1인당 소비가능량(kg)	14.7	15.1	15.1	15.0	16.2
자급률(%)	40.0	42.3	41.4	36.6	38.7
한우(거세우) 도매가격(원/kg)	18,619	18,000원 내외	18,500원 내외	20,000원 내외	21,000원 내외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02

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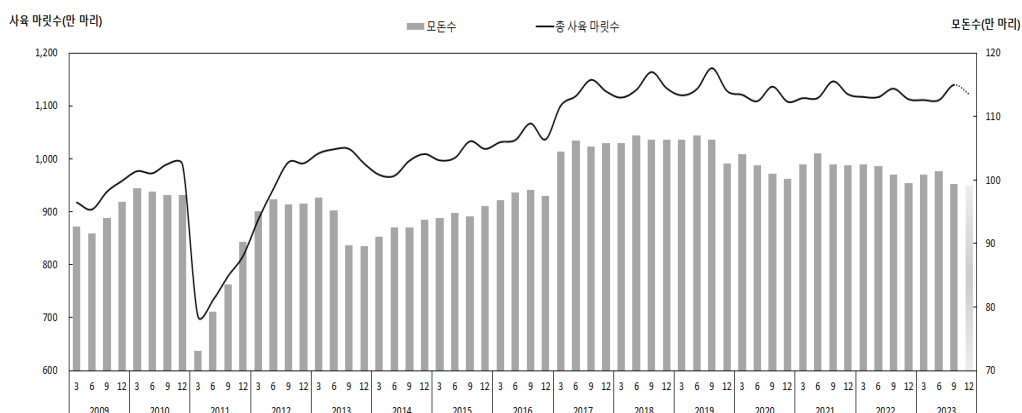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2.1.1. 돼지 사육 동향

- 2023년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든 사육 마릿수 감소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한 1,121만 마리로 추정된다.
- 2023년 모든 사육 마릿수는 사료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에 따른 사육의향 저하로 전년(101만 2천 마리) 대비 1.0% 감소한 100만 2천 마리로 추정된다.
 - 모든 사육 의향은 2022년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림 17-10. 돼지 사육 마릿수 동향



주 1) 2023년 12월 1일 사육 마릿수는 11월 말 이력제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2) 2017년부터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표본으로 조사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 농업관측센터

2.1.2. 돼지고기 수급 동향

- 2023년 돼지 도축 마릿수는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한 1,875만 마리이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마리당 평균 도체중 감소하였으나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111만 8천 톤이었다.
 - 돼지 평균 도체중(축산물품질평가원): 84.5kg/마리(2022년) → 84.2(2023년)
- 2023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EU산 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8.9% 감소한 40만 3천 톤이었다.
 - 2022년 수입량은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가 하락하여 2018년 이후 최대 수준인 44만 2천 톤에 달하였다. 반면, 2023년 수입량은 할당관세 적용으로 캐나다산, 브라질산,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EU산 수입량이 34.0%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삼겹살 수입량은 주요 수입국인 EU산은 감소하였으나 미국산 수입단가 하락 및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캐나다산 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17만 8천 톤이었다.
 - 가공품 원료로 이용되는 냉동 앞다릿살, 목심, 등심 등은 EU산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7.7% 감소한 21만 4천 톤이었다.
 - 2023년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미국이 35.7%로 가장 컸으며, 스페인 19.8%, 캐나다 12.9%, 칠레 7.4%, 네덜란드 6.6%, 오스트리아 4.5%, 브라질 2.6% 순이었다.
- 2023년 12월 말 기준 돼지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12.7% 감소한 10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국내산 돼지고기 재고량은 경기침체로 인한 삼겹살·목심 등의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17.0% 증가한 4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수입 돼지고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26.9% 감소한 6만 톤으로 추정된다.
- 2023년 돼지고기 총 공급량은 이월재고량은 증가하였으나 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0.8% 감소한 164만 2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3년 1인당 소비가능량은 전년과 비슷한 30.1kg으로 추정된다.
 - 2023년 자급률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수입량 감소로 전년 대비 0.7%p 상승한 73.2%로 추정된다.

표 17-17. 돼지고기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 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	이월 재고	국내산	39	25	56	58.0	-29.6	
		수입	82	80	84	1.9	-2.5	
		소계	121	105	140	15.2	-13.4	
	생산		1,118	1,107	1,087	1.0	2.9	
	수입		403	442	399	-8.9	1.0	
	소계	국내산	1,157	1,132	1,143	2.2	1.3	
		수입	485	523	483	-7.2	0.4	
		소계	1,642	1,655	1,626	-0.8	1.0	
	수요	소비	국내산	1,103	1,086	1,081	1.6	2.1
수입			425	441	394	-3.6	7.8	
소계			1,528	1,527	1,475	0.1	3.6	
수출		8	7	4	12.6	87.2		
재고		국내산	46	39	58	17.0	-20.2	
		수입	60	82	89	-26.9	-32.4	
		소계	106	121	146	-12.7	-27.6	
소계		국내산	1,157	1,132	1,143	2.2	1.3	
		수입	485	523	483	-7.2	0.4	
		소계	1,642	1,655	1,626	-0.8	1.0	
1인당 소비가능량			30.1	30.1	27.2	0.0	10.6	
자급률			73.2	72.5	73.7	0.7%p	-0.5%p	

주 1)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자급률 = 돼지고기 생산량 ÷ 돼지고기 소비량 × 100

3)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KREI 농업관측센터

2.1.3. 돼지고기 가격 동향

- 2023년 돼지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1.8% 하락한 5,134원/kg이었다.
 - 재고량과 경락 마릿수가 평년보다 적어 도매가격은 평년(4,401원) 대비 16.7% 상승하였다.

그림 17-11. 돼지고기 재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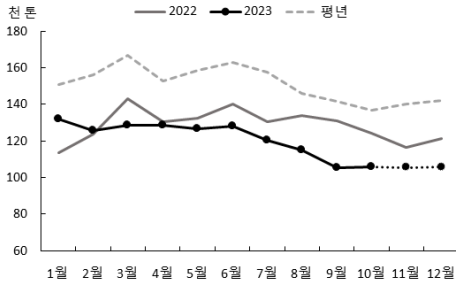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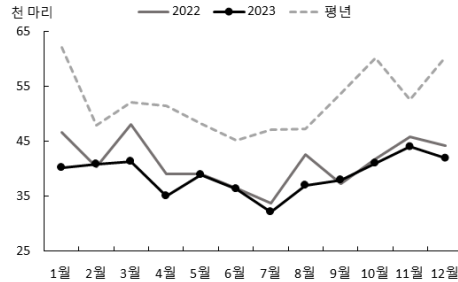


그림 17-12. 돼지 경락 동향



- 주 1)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 2) 2023년 11~12월 돼지고기 재고량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3) 경락 마릿수는 등의 제외이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 기준임.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 농업관측센터

- 2023년 부위별 평균 식육포장가격을 살펴보면, 삼겹살은 kg당 17,660원으로 전년 대비 5.5% 하락하였고, 목심은 15,043원으로 전년 대비 2.4% 하락하였다. 반면, 저지방부위인 뒷다릿살과 앞다릿살은 전년 대비 각각 5.1%, 4.1% 상승하였다.
- 2023년 삼겹살 소매가격은 100g당 2,534원으로 전년 대비 2.5% 하락하였다.

그림 17-13. 돼지 도매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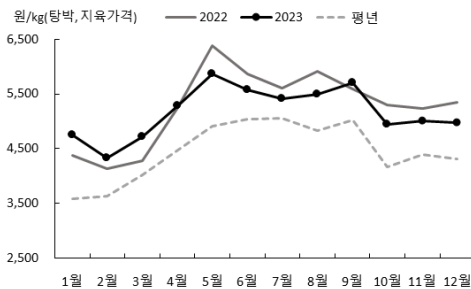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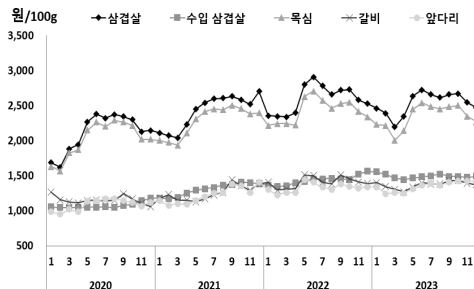


그림 17-14. 부위별 소매가격 동향



- 주 1)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 2) 소매가격은 2022년 3월까지의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2년 4월부터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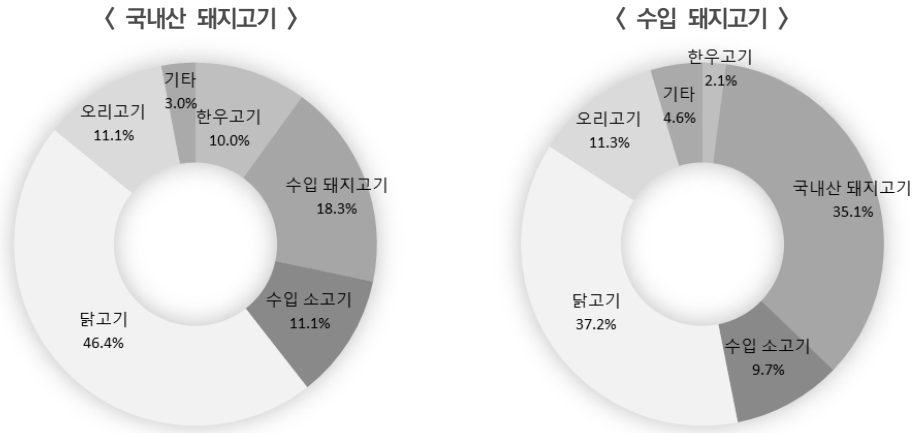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1.4. 돼지고기 소비행태 분석

-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가정 내 육류 소비 시 돼지고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 내 육류 소비 선호 비중은 돼지고기 67.6%, 소고기 19.3%, 닭고기 12.2%, 오리고기 0.9%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 점수(1~4점 기준)³⁾: 돼지고기 3.6점 > 한우고기, 닭고기 2.6점 > 오리고기 1.2점
 - 2023년 돼지고기 가정 내 소비 비중은 전년(65.5%) 대비 0.6%p 하락한 64.9%, 외식(배달 포함) 소비 비중은 전년(34.5%) 대비 0.6%p 상승한 35.1%로 나타났다.
 - 가정 내 조리 형태는 구이류가 62.5%, 요리류가 37.5%로 나타났으며, 외식은 구이류 55.1%, 요리류 44.9%로 조사되었다.
 - 가장 선호하는 돼지고기 부위가 삼겹살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62.3%이며, 다음 목심 21.3%, 갈비 9.5%, 앞다리/뒷다릿살 3.6%, 안심 2.2%, 등심 0.7% 순으로 응답하였다.
 - *선호 점수(1~4점 기준): 삼겹살 6.6점 > 목심 6.0점 > 갈비 5.6점 > 등심 4.2점 > 앞다리/뒷다릿살 및 안심 3.9점
- 돼지고기 선택 시 고려사항의 선호점수는 부위가 4.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원산지 4.0점, 가격 3.7점, 품질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 2023년 돼지고기를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에서 구입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5.7%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시장·정육점 25.6%, SSM(지역 마트 또는 슈퍼마켓) 17.3%, 온라인 8.8%, 백화점 1.6% 순으로 응답하였다.
-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줄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를 대체할 육류로는 닭고기 46.4%, 수입 돼지고기 18.3%, 수입 소고기와 오리고기 11.1%, 한우고기 10.0% 순으로 조사되었다.
 - 수입 돼지고기 소비를 대체할 육류로는 닭고기 37.2%, 국내산 돼지고기 35.1%, 오리고기 11.3%, 수입 소고기 9.7%, 기타 4.6%, 한우고기 2.1% 순으로 조사되었다.

3) 선호점수는 소비자의 선호도를 점수화하여 비교하기 위한 지표임.

그림 17-15. 돼지고기 대체 육류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2.2. 돼지고기 대내외 생산 여건 변화

2.2.1. 국내 여건 변화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발생되었으며, 2019년에는 경기도 파주시와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14건, 2020년과 2021년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각각 2건, 5건, 2022년은 7건, 2023년 10건 발생하여 5년간의 총 발생 건수는 38건이었다.
 - ASF로 인한 연간 돼지 살처분 마릿수⁴⁾는 2019년 36만 5천 마리(수매 6만 마리)였으며, 2020년 5천 마리, 2021년 9천 마리, 2022년은 3만 5천 마리, 2023년은 10만 6천 마리였다.
 - 지난 5년간 야생 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총 3,489건으로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2021년 964건, 2022년 878건, 2023년 736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생 지역별로는 경상북도 370건, 강원도 193건, 충북 172건, 부산 1건이었다.

4)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한 마릿수

표 17-18. 돼지 사육농장 ASF 발생현황

단위: 건

구 분	경기				인천		강원							계	
	파주	연천	김포	포천	강화	화천	영월	고성	인제	홍천	춘천	양구	철원		양양
2023	-	-	1	5	-	1	-	-	-	-	-	-	2	1	10
2022	1	-	1	-	-	-	-	-	-	1	2	1	1	-	7
2021	-	-	-	-	-	-	1	1	2	1	-	-	-	-	5
2020	-	-	-	-	-	2	-	-	-	-	-	-	-	-	2
2019	5	2	2	-	5	-	-	-	-	-	-	-	-	-	14
계	6	2	4	5	5	3	1	1	2	2	2	1	3	1	3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돼지 배합사료 가격은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곡물 공급 차질이 심화되고, 대미환율 강세로 상승세가 유지되었다. 2023년 1~11월 돼지 평균 배합사료 가격은 781.7원/kg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4.6% 상승하였지만, 2022년 말 정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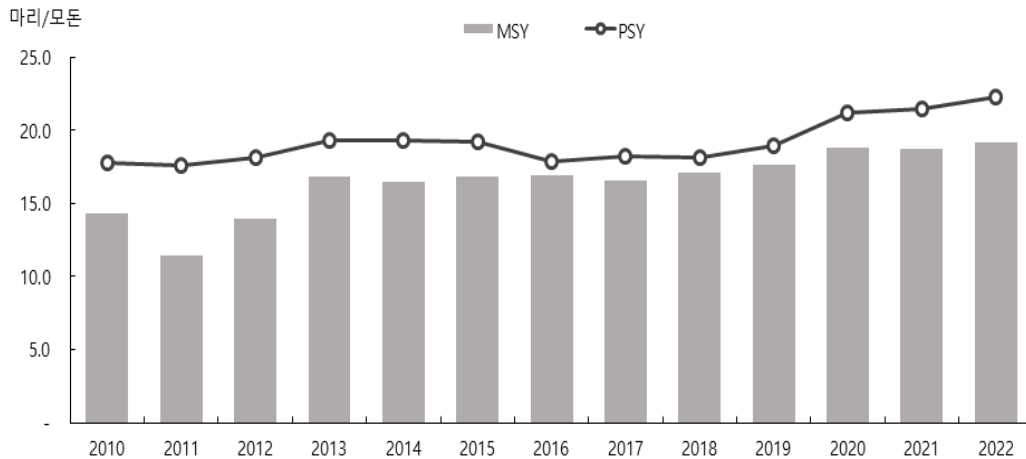
그림 17-16. 돼지 배합사료 가격 동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모돈 마리당 연간 이유 마릿수(PSY), 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 마릿수(MSY)는 다산성 모돈 입식과 2019년 ASF발생 이후 방역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등으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증가하였다. PSY는 2010년 17.8마리에서 2022년 22.3마리로, MSY는 2010년 14.3마리에서 2022년 19.2마리로 증가하였다.

그림 17-17. 돼지 PSY, MSY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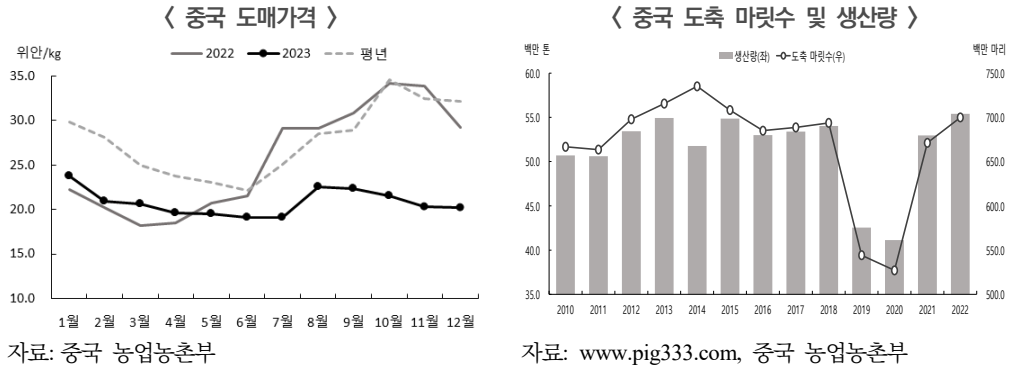
주: MSY는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의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 기반 표본 설계 이전 자료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정된 수치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2.2.2. 해외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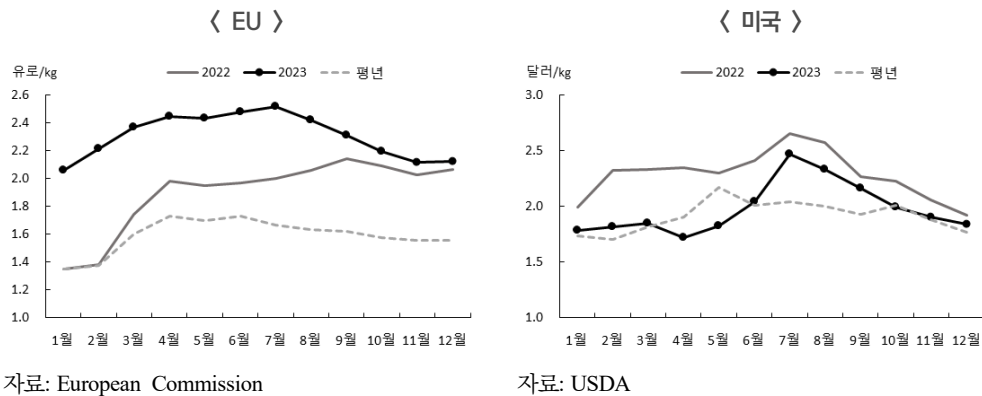
- 2018년 ASF 발생으로 감소했던 중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는 2021년 하반기에 회복되었다. 2023년 9월 돼지 사육 마릿수는 ASF 발생 직전인 2017년 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4억 4,229만 마리였다.
- 2023년 중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ASF 회복으로 인한 자국 내 공급량 증가 및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2023년 1~11월 수입량은 145만 9천 톤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6.3% 감소하였다.
- 2023년 중국 평균 도매가격은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18.9% 하락한 20.8위안/kg 이었다.

그림 17-18. 중국 수급 및 가격 동향



- 2023년 EU 평균 도매가격은 경영비 증가에 따른 사육의향 저하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1.6% 상승한 2.3유로/kg였다.
 - 생산량은 전년 대비 3.5% 감소한 2,150만 톤, 수출량은 가격 상승 영향으로 23.3% 감소한 320만 톤이었다.
- 2023년 미국 평균 도매가격은 생산량과 재고량 증가로 전년 대비 13.4% 하락한 1.98달러/kg였다.

그림 17-19. EU와 미국 돼지 도매가격 동향



- 2023년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미국산은 하락하였으나 EU산 생산량 감소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17-19. 돼지고기 정육 수입단가

단위: 달러/kg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3년	3.69	3.77	3.64	3.60	3.75	3.72	3.89	3.86	3.73	3.70	3.80	3.64	3.75
2022년	3.72	3.70	3.83	3.78	3.69	3.76	3.83	3.78	3.74	3.65	3.72	3.74	3.75
전년대비(%)	-0.74	1.83	-4.94	-4.71	1.47	-1.16	1.56	2.11	-0.31	1.00	2.13	-1.9	0.0

주: 돼지고기 정육은 HS Code 0203.19.1000, 0203.19.9000, 0203.29.1000, 0203.29.9000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관세무역개발원

2.2.3. 해외 돼지고기 수급 전망⁵⁾

- 2024년 세계 돼지고기 생산량은 중국과 미국의 돼지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지만, 미국의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수준인 1억 1,549만 톤으로 전망된다.
- (중국) 202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5,595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5,814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입량은 자국 내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230만 톤으로 전망되며, 20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중국 ASF 재확산 정도에 따라 수입량 증가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EU) 202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돼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1.6% 감소한 2,115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1.9% 감소한 1,805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출량은 생산량 감소에도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국 내 소비 감소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20만 톤으로 전망된다.
- (미국) 2024년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 감소에도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한 1,266만 톤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1,005만 톤으로 전망된다.
 -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315만 톤으로 전망된다.

5) 미농무부(USDA)에서 작성한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0.)을 참조·인용하여 작성함.

표 17-20. 주요국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천 톤

구 분	중국			EU			미국			
	2024년	2023년	2022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4년	2023년	2022년	
공 급	사육	435,000	452,560	449,220	132,100	134,410	141,681	73,300	74,849	74,446
	생산	55,950	56,500	55,410	21,150	21,500	22,277	12,660	12,385	12,252
	수입	2,300	2,275	2,125	100	100	120	533	510	610
	소계	58,250	58,775	57,535	21,250	21,600	22,377	13,193	12,895	12,862
수 요	소비	58,140	58,683	57,434	18,050	18,400	18,225	10,048	9,839	9,957
	수출	110	92	102	3,200	3,200	4,173	3,152	3,067	2,873
	소계	58,250	58,775	57,535	21,250	21,600	22,398	13,200	12,906	12,830
자급률(%)	96.2	96.3	96.5	117.2	116.8	122.2	126.0	125.9	123.0	

자료: USDA, 「Livestock and Poult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0.)

- 2024년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국제가격이 소폭 상승하나 환율은 하락하여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 EU산과 미국산 돼지고기 도매원가는 각각 0.1% 씩 하락한 5,781원/kg, 4,817원/kg으로 예상된다.
- 2025~2033년 수입 돼지고기 국내 도매원가는 국제 돼지고기 가격과 환율 하락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U산 돼지고기는 2028년에는 5,376원/kg, 2033년에는 5,366원/kg으로 하락하고, 미국산은 2028년에 4,480원/kg, 2033년에는 4,472원/kg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21. 수입 돼지고기 도매원가 전망

구분		2023년(p)	전망		
			2024년	2028년	2033년
환율(원/US\$)		1,308	1,291	1,203	1,192
수입단가 (\$/kg)	EU	4.02	4.07	4.06	4.09
	미국	3.35	3.39	3.39	3.41
	기타	3.28	3.31	3.28	3.30
관세율 (%)	EU	-	-	-	-
	미국	-	-	-	-
	기타	4.1	4.1	4.1	4.1
도매원가 (원/kg)	EU	5,784	5,781	5,376	5,366
	미국	4,820	4,817	4,480	4,472
	기타	4,313	4,286	3,968	3,954

주 1) 환율은 Global Insight 전망치를 이용함.

2) 2023년 수입단가는 관세청 수입 실적을 이용하여 계산함.

3) 도매원가는 국가별 수입단가에 환율, 관세, 부대비용과 수입업자 이윤 등을 포함한 가격임.

4) 기타는 미국, EU를 제외한 칠레, 캐나다, 호주, 멕시코, 브라질 등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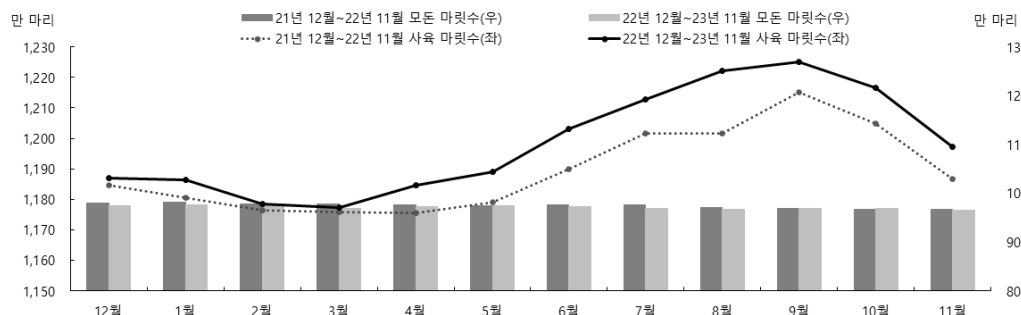
2.3.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2.3.1. 돼지 사육 구조 분석⁶⁾

- 2023년 11월 말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돼지 사육 마릿수는 1,197만 4천 마리로 전년 대비 0.9% 증가하였다. 2022년 5월부터 모든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모든 생산성 향상으로 전체 사육 마릿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6) 2023년 11월 말 기준 축산물품질평가원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됨.

그림 17-20. 돼지 사육 마릿수 동향



주: 돼지 모돈과 사육 마릿수는 매월 말일 기준의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를 토대로 작성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 2024년 1~5월까지 출하되는 2023년 11월 기준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1,089만 마리였다.
 - 자돈과 육성돈은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전년 대비 각각 2.4%, 1.1% 증가하였으나 비육돈은 당월 도축 마릿수 증가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다.

표 17-22. 2023년 11월 말 돼지 사육 동향

단위: 만 마리

구 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1,197	1,187	1,187	0.9	0.8
모든	96.6	96.7	97.5	-0.2	-0.9
자돈·육성돈·비육돈	1,089	1,078	1,073	1.0	-1.3
자돈(0~2개월)	396	387	384	2.4	3.2
육성돈(2~4개월)	346	342	339	1.1	2.2
비육돈(4~6개월)	346	348	351	-0.6	-1.3

주 1) 단계별 돼지 사육 마릿수는 매년 11월 말일 기준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임.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3.2. 돼지 사육 및 도축 전망

- 2024년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0.1% 감소한 1,120만 마리로 전망된다.
 - 분기별 사육 마릿수는 모든 감소세가 2024년에도 이어지면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1,111만 마리, 6월 1,108만 마리, 9월 1,137만 마리, 12월 1,122만 마리로 전망된다.

표 17-23. 2024년 돼지 사육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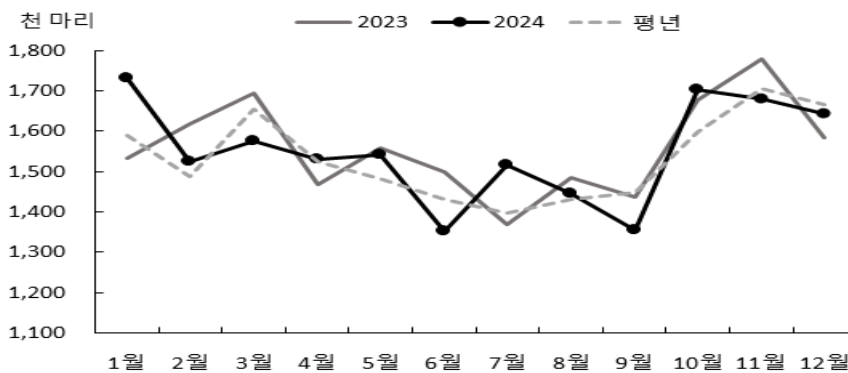
단위: 만 마리, %

구 분	모든수				전체 사육 마릿수			
	3월	6월	9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2024년	100.6	101.2	99.1	99.2	1,111	1,108	1,137	1,122
2023년	100.8	101.4	99.3	99.3	1,111	1,111	1,140	1,122
증감률	-0.2	-0.2	-0.2	-0.1	0.0	-0.2	-0.2	-0.1

주: 2023년 3~9월 사육 마릿수는 통계청, 12월은 11월 말 기준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추정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 2024년 돼지 도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1,865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4년 1월 도축 마릿수는 작업일수 증가로 전년 대비 12.8% 증가한 173만 마리로 전망된다.
 - 2~5월의 경우 출하가능 마릿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작업일수 감소로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6~9월은 출하가능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이후는 전년 대비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21. 2024년 도축 마릿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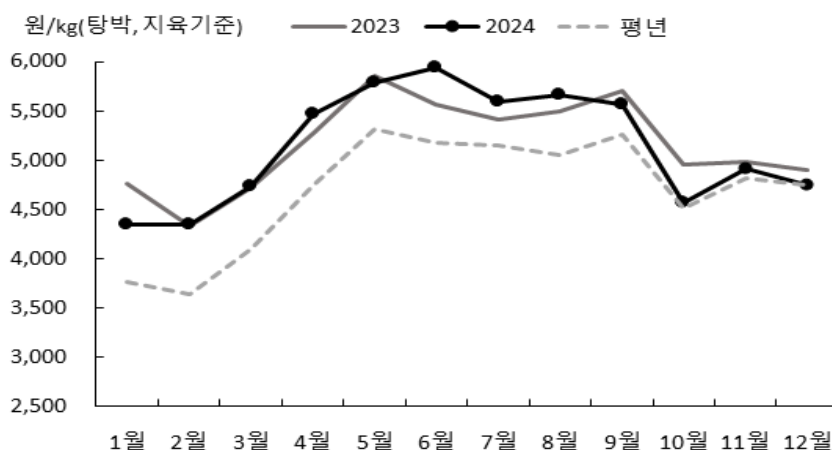


주: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 농업관측센터

2.3.3.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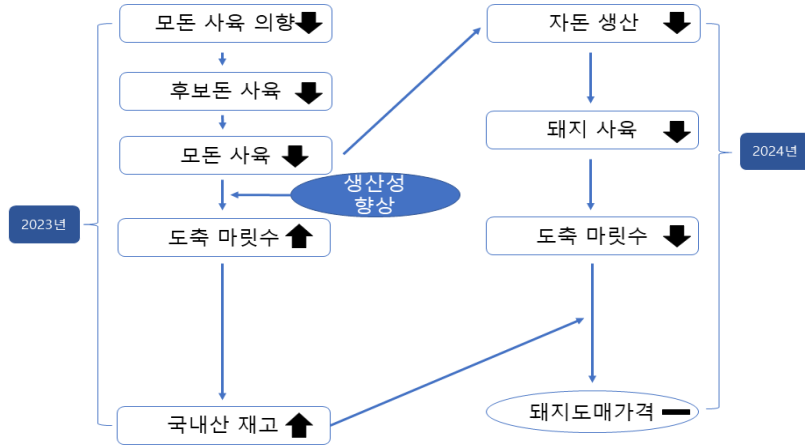
- (단기 전망) 2024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0.6% 감소한 111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주요 수입국인 미국산과 EU산 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할당관세 적용으로 수입량이 증가했던 캐나다산, 브라질산, 멕시코산 돼지고기 수입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2.7% 감소한 39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국내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도축 마릿수는 감소하나 국내산 이월재고량 증가로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돼지 도매가격은 전년(5,134원)과 비슷한 수준인 5,100~5,300원/kg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자급률은 생산량과 수입량 모두 감소하나 수입량 감소폭이 더 커 전년 대비 1.0%p 상승한 74.2%로 전망된다.
- 2024년 돼지고기 재고량은 총 공급량 감소로 전년(10만 6천 톤) 대비 1.1% 감소한 10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그림 17-22. 2024년 돼지 도매가격 전망



주: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KREI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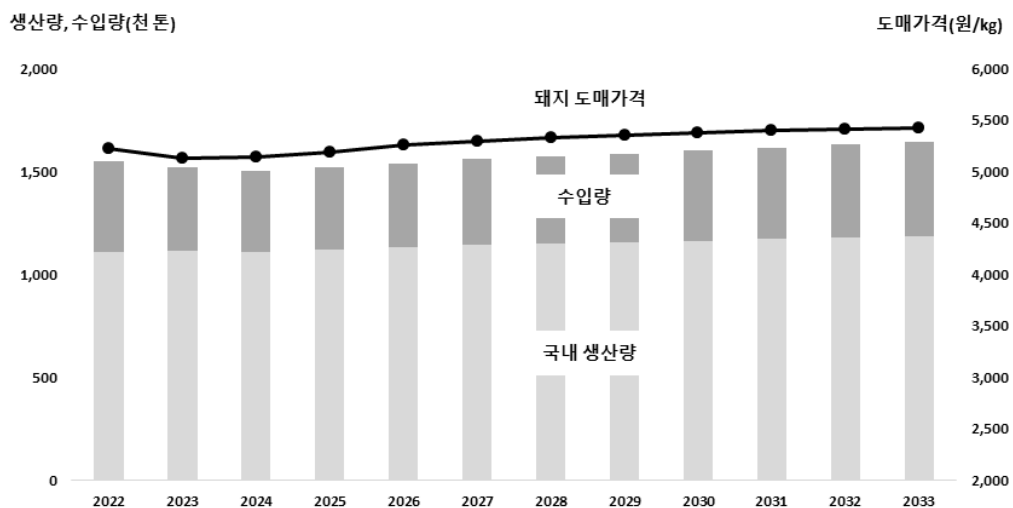
그림 17-23. 2024년 돼지 수급 및 가격 전망 흐름도



2.3.4. 중장기 전망

- 돼지 사육 마릿수는 모든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은 사육 증가에 따른 도축 증가가 예상되어 2028년 115만 톤, 2033년 119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수입량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돼지고기의 국내 도매원가 하락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33년에는 46만 톤으로 전망된다.
 - 돼지고기 자급률은 중장기적으로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2028년 73.6%, 2033년 72.6%로 전망된다.
- 돼지 도매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육류 소비 증가 등으로 상승하여 2028년 5,200~5,400원/kg, 2033년 5,300~5,500원/kg으로 전망된다.

그림 17-24. 돼지 수급 및 도매가격 전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표 17-24.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전망

단위: 천 톤, %, kg, 원/kg

구분		2023년(p)	전망		
			2024년	2028년	2033년
공급	이월재고	121	106	110	118
	생산	1,118	1,112	1,151	1,187
	수입	403	392	423	458
	소계	1,642	1,610	1,683	1,763
수요	소비	1,528	1,498	1,564	1,636
	수출	8	7	8	8
	재고	106	105	111	120
	소계	1,642	1,610	1,683	1,763
1인당 소비가능량		30.1	29.5	31.0	32.6
자급률		73.2	74.2	73.6	72.6
도매가격		5,134	5,100~5,300	5,200~5,400	5,300~5,5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03

젖소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3.1. 젖소 사육 및 원유 수급 동향

3.1.1. 젖소 사육 동향

- 2023년 젖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0.8%, 4.2% 감소한 38만 7천 마리로 추정되는데, 이는 낙농가 생산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 1세 미만과 1~2세 미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각각 8.8%, 1.7%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2세 이상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4만 6천 마리로 추정된다. 경산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23만 마리로 추정되며, 착유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19만 5천 마리로 추정된다.

표 17-25. 젖소 사육 동향

단위: 천 마리

구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마릿수	387	390	404	-0.8	-4.2
1세 미만	70	76	79	-8.8	-11.4
1~2세	72	73	73	-1.7	-2.4
2세 이상	246	241	252	2.1	-2.5
경산우	230	225	237	2.1	-2.9
착유우	195	191	201	2.1	-2.9

주 1) 사육 마릿수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주 2)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주 3)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 2023년 농장당 사육 마릿수는 50마리 미만 농장 폐업 및 100마리 이상 농장의 규모화와 전업화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69.0 마리였다.
 - 100마리 이상 사육 농장 수는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9%, 2.7% 증가하였으나, 50마리 미만의 농장 수는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8.9%, 10.6% 감소하였다.

표 17-26. 농장당 사육 마릿수 동향

단위: 농장, 마리

구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총 농장 수	5,604	5,888	6,128	-4.8	-8.6
20마리 미만	1,281	1,403	1,449	-8.7	-11.6
20~50마리	1,003	1,103	1,106	-9.1	-9.3
50~100마리	1,917	2,018	2,207	-5.0	-13.2
100마리 이상	1,403	1,364	1,366	2.9	2.7
농장당 사육 마릿수	69.0	66.2	65.9	4.3	4.7

주 1) 사육 농장 수 및 사육 마릿수는 12월 1일 기준 자료임.

2)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3)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KREI 농업관측센터

- 2023년 1분기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은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한 사료 수급 불안정과 착유우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대비 0.4% 감소한 28.2kg이었다.
- 2분기와 3분기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은 폭염일수 증가⁷⁾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전년과 평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4분기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2.8%, 2.4% 감소한 26.6kg으로 추정된다.

7) 전국의 2~3분기 폭염일수는 전년 대비 3.5일 증가하였으며, 경기와 충남은 전년 대비 각각 6.3일, 6.1일 증가하였는데, 전체 사육 마릿수의 약 40%가 경기, 17%가 충남에 속해 있다.

표 17-27. 마리당 일평균 산유량 동향

단위: kg/일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1분기	28.2	28.4	28.0	-0.4	1.0
2분기	28.4	29.4	28.8	-3.4	-1.7
3분기	26.7	27.4	26.8	-2.8	-0.4
4분기(p)	26.6	27.3	27.2	-2.8	-2.4

주 1) 2023년 4분기는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3.1.2. 원유 수급 동향

- 2023년 원유 공급량(원유 환산)은 국내 생산, 수입 및 이월 재고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4.8%, 3.6% 감소한 438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 2023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2.3% 감소한 193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사료 수급 여건 불안정, 여름철의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생산성이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2023년 수입량(원유 환산)은 환율 및 운송비, 부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국내 유제품 소비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한 238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 분유(탈지, 전지)의 수입량은 수입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국내 소비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밀크와 크림, 치즈, 조제분유 수입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23년 국내 소비량은 전년 대비 4.4% 감소한 421만 7천 톤으로 추정되며, 1인당 원유 소비가능량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81.9kg으로 추정된다.

표 17-28.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 kg

구 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공급	이월 재고	72	108	102	-33.6	-29.2
	국내 생산	1,930	1,975	2,042	-2.3	-5.5
	수입	2,386	2,525	2,417	-5.5	-1.3
	공급계	4,388	4,609	4,552	-4.8	-3.6
수요	국내 소비	4,217	4,410	4,328	-4.4	-2.5
	수출	125	126	126	-0.7	-0.4
	재고	45	72	93	-37.6	-51.9
	수요계	4,388	4,608	4,552	-4.8	-3.6
자급률		45.8	44.8	47.4	2.2	-3.5
1인당 소비가능량		81.9	85.7	83.8	-4.5	-2.3

주 1)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3) 자급률 = 원유 생산량 ÷ 원유 소비량 × 100
 자료: 낙농진흥회, 농림축산식품부, KREI 농업관측센터

표 17-29.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

구분	2023년		2022년		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밀크와 크림	79,793	190,168	75,963	181,464	46,729	106,138	5.0	4.8	70.8	79.2
탈지분유	8,482	28,143	14,690	57,033	18,641	51,472	-42.3	-50.7	-54.5	-45.3
전지분유	5,021	24,382	6,857	33,477	5,335	20,254	-26.8	-27.2	-5.9	20.4
연유	71	849	65	462	56	160	8.8	84.0	26.1	432.0
유당	22,435	37,322	21,584	34,321	22,890	31,289	3.9	8.7	-2.0	19.3
버터밀크	1	9	0	5	15	95	332.9	71.9	-94.4	-90.9
버터	29,802	217,118	29,927	202,202	17,895	106,604	-0.4	7.4	66.5	103.7
유장	78,315	212,304	84,481	253,318	81,999	171,195	-7.3	-16.2	-4.5	24.0
치즈	161,753	862,605	154,096	792,750	144,484	623,238	5.0	8.8	12.0	38.4
발효유	2,170	12,813	2,005	14,236	1,199	7,032	8.2	-10.0	81.0	82.2
조제분유	4,913	96,762	4,763	90,051	4,623	85,060	3.2	7.5	6.3	13.8
우유조제품	736	10,102	655	7,606	629	6,566	12.3	32.8	17.0	53.8
아이스크림	7,421	46,446	7,946	45,124	7,867	42,704	-6.6	2.9	-5.7	8.8

주 1) 밀크와 크림은 대부분 멸균유와 크림으로 추정됨.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멸균유는 보관이 용이하고 국산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3만 7천 톤이었다.
 - 국내 원유 가격 인상으로 수입 멸균유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늘어나 멸균유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주요 멸균유 수입국은 폴란드로, 전체 수입량의 8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4.1%), 독일(3.9%), 프랑스(2.2%) 순이다.

그림 17-25. 멸균유 수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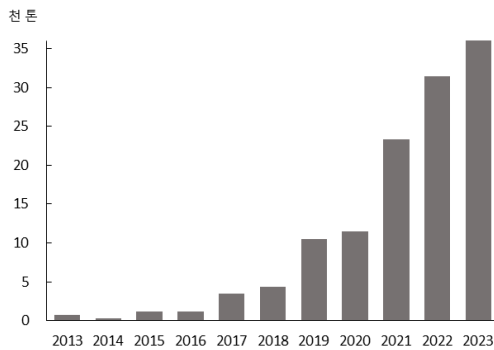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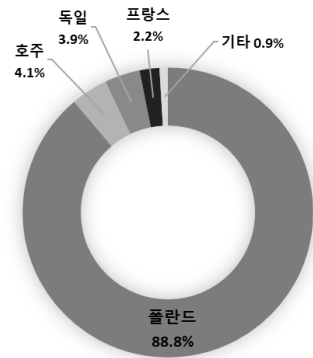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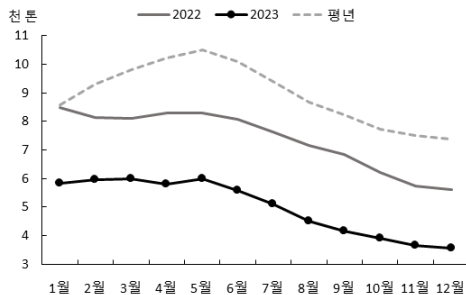
그림 17-26. 국가별 멸균유 수입량 비중(2023년)



주: 멸균유 수입량은 HS Code 0401.10.0000, 0401.20.0000의 합계임.
 자료: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 2023년 재고량(원유 환산)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37.6%, 51.9% 감소한 4만 5천 톤(분유 기준 3,568 톤)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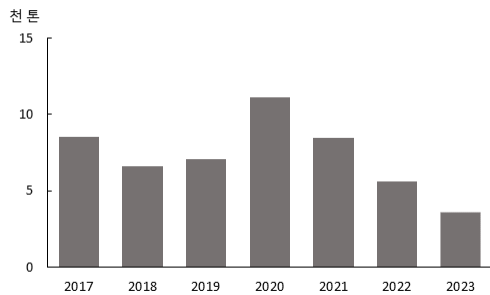
그림 17-27. 월별 분유 재고 동향



주 1) 2023년 12월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2)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낙농진흥회, KREI 농업관측센터

그림 17-28. 연도별 12월 분유 재고 동향



3.1.3. 유제품 소비 변화

-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 조사 결과, 2023년 10월 림피스킨(LSD) 발생 이후 우유 소비가 발생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5.6%였으며, 증가하였거나 변화 없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각각 4.2%, 80.2%로 조사되었다.
- 우유 소비가 감소한 이유로는 ‘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 우려’가 80.3%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상승’이 11.3%로 나타났다. 우유 소비가 증가하였거나 변함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국산 축산물 안전성 신뢰’가 71.2%로 가장 많았으며,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서(16.6%)’, ‘맛이 좋아서(8.6%)’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의 우유 구매처 비중은 대형마트, 동네 슈퍼, 온라인, 배달, 편의점 순이었다. 대형마트와 동네슈퍼가 각각 45.4%, 33.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년 대비 각각 1.9%p, 1.4%p 하락하였다. 반면, 온라인 구매 비중은 11.2%로 전년보다 0.7%p 상승하였으며, 배달과 편의점도 전년 대비 각각 2.0%p, 0.5%p 높게 나타났다.

그림 17-29. 우유 구매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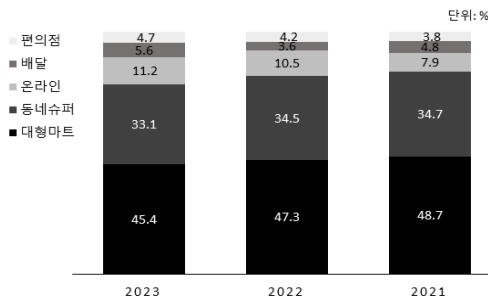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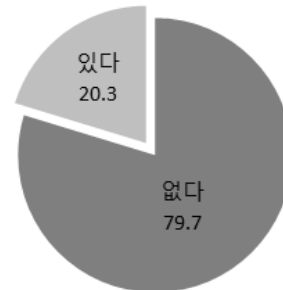


그림 17-30. 수입 멸균유 구매 경험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수입 멸균유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20.3%로 나타났으며, 79.7%는 구매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 구매 이유로는 ‘보관이 간편해서’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이 저렴해서(25.5%)’ 순으로 나타났다.
 - 수입 멸균유 맛이 국산보다 좋아서 구매한다고 응답한 소비자가 2.8%, 국산보다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소비자가 2.8%로 나타났다.

- 멸균유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원산지(22.6%)’로 나타났으며, ‘가격’ 20.8%, ‘브랜드’ 14.2%, ‘영양성분’ 13.2% 순으로 나타났다.
- 선호하는 멸균유 원산지는 한국이 46.7%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17.8%), 폴란드(17.8%), 미국(6.5%), 독일(4.7%)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17-31. 수입 멸균유 구매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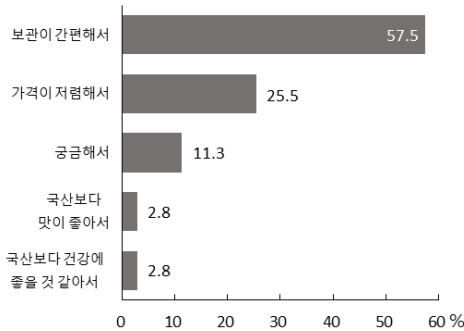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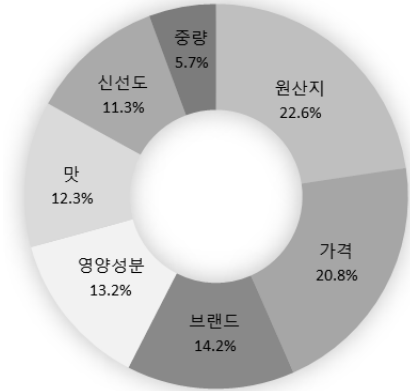


그림 17-32. 수입 멸균유 구매시 고려 사항



자료: KREI 농업관측센터 소비자조사 결과

- 2023년 국내산 원유의 음용유용 사용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8%, 3.4% 감소한 169만 4천 톤으로 추정된다. 가공용 원유 사용량은 23만 6천 톤으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5.7%, 15.9%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30. 국내산 원유 사용 실적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음용유용	1,694(87.8)	1,725(87.3)	1,754(86.2)	-1.8	-3.4
가공용	236(12.2)	250(12.7)	280(13.8)	-5.7	-15.9
합계	1,930(100.0)	1,975(100.0)	2,034(100.0)	-2.3	-5.1

- 1) 음용유용은 시유(백색, 가공)와 발효유, 유음료의 합계임.
- 2)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 3)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 4) ()는 비중임.

자료: 낙농진흥회, KREI 농업관측센터

- 2023년 유제품 소비량은 저출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조제분유는 전년 대비 12.1% 감소한 1만 2천 톤이며,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는 전년 대비 각각 32.2%, 30.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반면, 자연치즈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4만 9천 톤으로 추정되며, 버터와 크림 소비는 전년 대비 각각 0.5%, 2.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7-31. 유제품 소비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23년(p)	2022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자연치즈	149	138	129	8.6	16.2
가공치즈	43	52	53	-17.0	-18.9
버터	32	32	20	0.5	55.9
조제분유	12	14	18	-12.1	-29.4
전지분유	5	8	7	-32.2	-23.1
탈지분유	16	23	28	-30.1	-41.2
크림	73	72	61	2.3	19.2
연유	17	15	12	10.4	36.1
발효유	480	540	567	-11.2	-15.5

주 1) 유제품 소비량은 국내 소비량과 수출량의 합계임.

2) 2023년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3)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낙농진흥회, KREI 농업관측센터

3.2. 원유 및 유제품 대내외 생산 여건 변화

3.2.1. 국내 여건 변화

- 2022년 우유 1리터당 생산비는 전년 대비 13.7%(116원) 증가한 959원이었다. 이는 경영비에서 가장 큰 비중(약 69.4%)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전년 대비 16.6%(81원)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표 17-32. 우유 1리터당 생산비 동향

단위: 원/ℓ

구분	2022년	2021년	평년	증감률(%)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생산비	959	843	791	13.7	21.3
경영비	821	713	668	15.2	22.9
용역비(자본, 토지)	14	13	14	10.2	3.8
자가노동비	123	117	109	4.9	13.1

주: 평년은 2018~2022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 2023년 1월 1일부터 원유의 사용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시행되었다. 이는 국산 원유로 생산하는 유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유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원유가격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2023년의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996원, 가공유용 기본가격은 800원으로 결정되었다.
- 개편된 낙농 제도에서의 첫 원유가격 협상이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졌다. 2022년 리터당 원유 생산비는 13.7% 상승하였으나 우유 소비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은 996원 대비 8.8%(88원) 상승한 1,084원, 가공유용은 800원 대비 10.9% 상승한 887원으로 결정되었다.
 - 다만, 원유 기본가격 인상 시기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예상보다 2개월 연기한 10월 1일로 결정하였다.

표 17-33. 원유 기본가격 변동 추이

단위: 원/ℓ

기간	기본가격	인상률(%)
2015.08.~2016.07.	940	-
2016.08.~2018.07.	922	-1.9
2018.08.~2021.07.	926	0.4
2021.08.~2022.10.	947	2.3
2022.10.~2022.12.	999	5.5
2023.01.~2023.09.	996(800)	-0.3
2023.10. ~	1,084(887)	8.8(10.9)

주: ()는 가공유용 원유 기본가격임.
 자료: 낙농진흥회

3.2.2. 해외 수급 동향

- 2023년 세계 원유 생산량은 인도, 중국, 브라질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9% 증가한 5억 4,968만 톤으로 추정된다(USDA, 2023.12.).
 - 원유 생산량은 EU가 1억 4,480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1억 292만 톤으로 가장 많았다.

표 17-34. 국가별 유제품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국가	원유			치즈			버터			분유		
	2023년	2022년	증감률	2023년	2022년	증감률	2023년	2022년	증감률	2023년	2022년	증감률
EU	144,800	144,378	0.3	10,390	10,340	0.5	2,100	2,090	0.5	2,140	2,133	0.3
미국	102,921	102,722	0.2	6,400	6,379	0.3	955	934	2.2	1,178	1,257	-6.3
인도	99,000	97,000	2.1	0	0	-	6,750	6,500	3.8	730	700	4.3
중국	41,000	39,200	4.6	25	20	25.0	110	109	0.9	1,205	1,075	12.1
러시아	32,300	32,150	0.5	1,100	1,085	1.4	280	275	1.8	170	165	3.0
브라질	24,700	23,660	4.4	770	745	3.4	81	81	0.0	728	725	0.4
뉴질랜드	21,300	21,051	1.2	400	375	6.7	510	500	2.0	1,790	1,790	0.0
영국	15,500	15,447	0.3	520	515	1.0	215	205	4.9	75	50	50.0
멕시코	13,250	12,980	2.1	465	455	2.2	245	236	3.8	173	170	1.8
아르헨티나	11,700	11,904	-1.7	520	535	-2.8	39	40	-2.5	220	291	-24.4
캐나다	10,265	10,178	0.9	522	517	1.0	125	120	4.2	88	90	-2.2
호주	8,400	8,450	-0.6	425	400	6.3	50	55	-9.1	180	192	-6.3
우크라이나	6,900	7,780	-11.3	135	150	-10.0	57	60	-5.0	36	35	2.9
벨라루스	7,980	7,910	0.9	380	370	2.7	125	123	1.6	185	182	1.6
일본	7,250	7,630	-5.0	47	48	-2.1	70	75	-6.7	150	160	-6.3
한국	1,930	1,975	-2.8	45	47	-4.3	0	0	-	8	6	33.3
대만	465	460	1.1	0	0	-	0	0	-	0	0	-
필리핀	17	17	0.0	2	2	0.0	0	0	-	0	0	-
인도네시아	0	0	-	0	0	-	0	0	-	61	59	3.4
칠레	0	0	-	0	0	-	0	0	-	75	76	-1.3
합계	549,678	544,892	0.9	22,146	21,983	0.7	11,712	11,403	2.7	9,192	9,156	0.4

주 1) 2023년 한국의 원유 생산량은 KREI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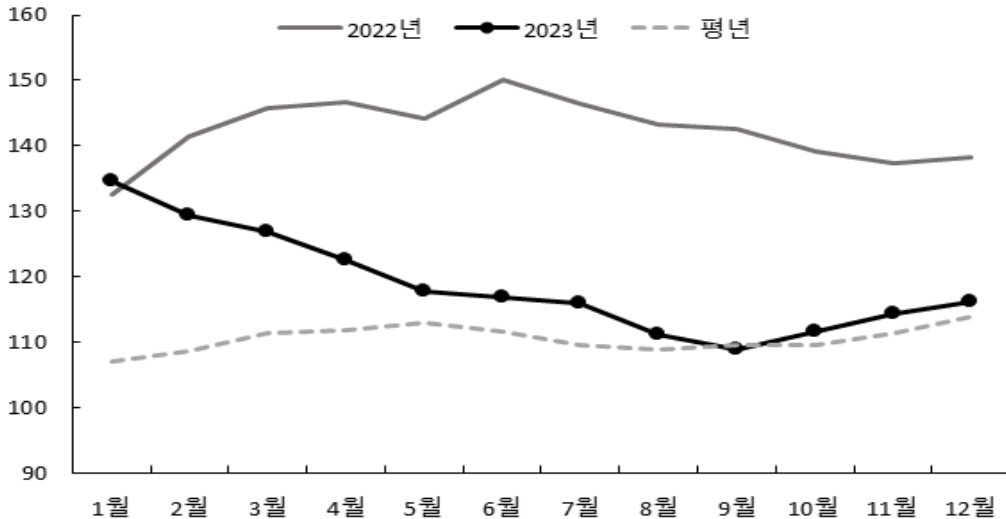
2) 한국을 제외한 국가의 생산량은 12월 기준 USDA 전망치임.

3) 분유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합계임.

자료: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KREI 농업관측센터

- 2023년 치즈 생산량은 전년 대비 0.7% 증가한 2,215만 톤이었으며, 버터 생산량은 전년 대비 2.7% 증가한 1,171만 톤이었다. 분유는 주요 생산국인 EU, 중국 등의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였다.
 - 치즈 생산량은 EU가 1,039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과 러시아가 뒤를 이었다. 버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인도(675만 톤)이며 EU, 미국 순이었다.
- 2023년 평균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는 전년(142.4) 대비 23.6p 하락한 118.8을 기록하였다. 이는 유제품 수입 수요 감소, 전반적인 수요 둔화 등의 원인으로 유제품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 유제품 가격 지수는 2022년 6월에 최고치(150.2)를 기록한 후 2023년 9월(108.9)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버터와 분유류의 수입 수요 부진, 서유럽의 수출 가용량 확대 등의 영향이다.
 - 이후에는 서유럽과 동북아시아의 분유 및 버터 수요 증가, 오세아니아 지역의 공급량 감소 우려로 인한 국제 분유 가격 상승, 중동의 치즈 수입 수요 증가 등으로 12월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는 116.1이었다.

그림 17-33. 세계 유제품 가격 지수



주: 유제품 가격 지수는 버터, 치즈, 전지분유, 탈지분유 4개 품목에 대한 8개의 국제 가격을 해당 품목의 교역량 비중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함(2014~2016년 평균=100).

자료: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3.2.3. 해외 수급 전망⁸⁾

- 주요 낙농 수출국의 2024년 원유 생산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EU의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0.1% 감소한 1억 4,460만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젓소 사육 마릿수 감소와 생산성 개선에도 여전히 높은 생산비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아 낙농가의 부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USDA, 2023. 12).
- 미국의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산유량이 증가해 전년 대비 0.9% 증가한 1억 387만 톤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의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엘니뇨(El Nino), 원유 수취가격 하락, 사육 마릿수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2,120만 톤으로 전망된다.
- 아르헨티나의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7% 감소한 1,150만 톤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아르헨티나의 통화 가치 하락으로 사료비와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호주의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지난 3년간 원유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던 높은 소고기 가격이 안정되고 노동력 부족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1.2% 증가한 850만 톤으로 전망된다.

표 17-35. 주요 낙농 수출국 원유 생산량 전망

단위: 천 톤

국가	생산량		증감률(%)
	2024년	2023년	
EU	144,600	144,800	-0.1
미국	103,874	102,921	0.9
뉴질랜드	21,200	21,300	-0.5
아르헨티나	11,500	11,700	-1.7
호주	8,500	8,400	1.2

자료: USDA,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2.)

8) 미농무부(USDA)에서 작성한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2.)을 참조·인용하여 작성함.

- 2024년 유제품의 국가별 수출량 전망을 보면, EU의 2024년 치즈 생산량은 치즈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량은 수입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1.8% 증가한 138만 톤으로 전망된다.
- 미국 치즈 생산량은 가공 시설 확대와 원유 생산량 증가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수출량은 일본과 중국, 한국, 필리핀에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7.6% 증가한 46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의 2024년 치즈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40만 톤으로 예상되지만, 수출량은 호주와 EU의 수출량 증가로 전년 대비 5.4% 감소한 37만 톤으로 전망된다.
- EU의 버터 수출량은 버터 생산량 감소와 타 수출국과의 경쟁 심화로 전년보다 3.5% 감소한 27만 5천 톤으로 전망되며, 뉴질랜드도 전년 대비 7.7% 감소한 48만 톤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의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수출량은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소비 감소로 전년 대비 각각 1.9%, 5.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의 전지분유 생산량은 원유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탈지분유 생산량은 크림 생산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7-36. 유제품 주요 수출 국가별 수출량 전망

단위: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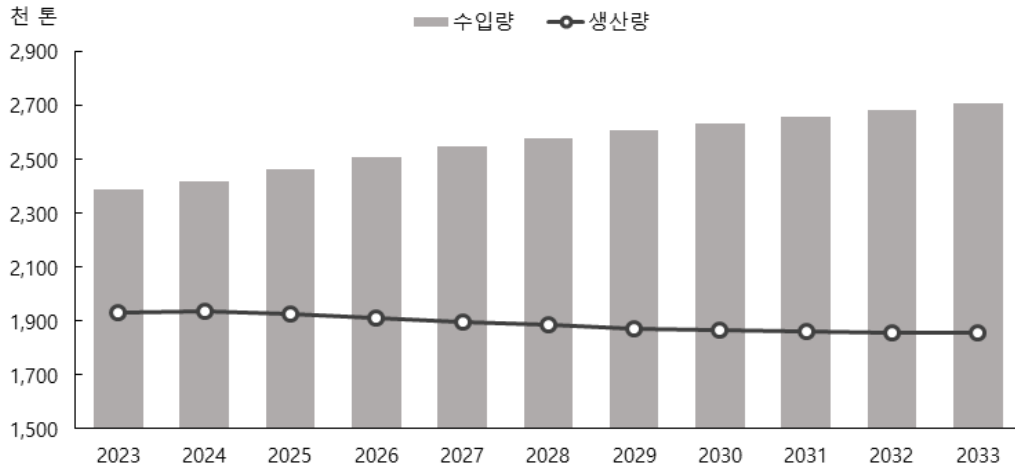
국가	치즈			버터			전지분유			탈지분유		
	2024년	2023년	증감률	2024년	2023년	증감률	2024년	2023년	증감률	2024년	2023년	증감률
EU	1,380	1,355	1.8	275	285	-3.5	250	260	-3.8	810	815	-0.6
미국	466	430	7.6	41	37	7.0	-	-	-	838	810	2.8
뉴질랜드	370	391	-5.4	480	520	-7.7	1,325	1,350	-1.9	440	465	-5.4
벨라루스	315	310	1.6	82	80	2.5	-	-	-	125	123	1.6
영국	180	175	2.9	65	55	18.2	-	-	-	-	-	-
호주	160	130	23.1	-	-	-	40	45	-11.1	125	125	0.0
아르헨티나	-	-	-	-	-	-	165	105	57.1	-	-	-
합계	2,871	2,791	2.9	943	977	-3.5	1,780	1,760	1.1	2,338	2,338	0.0

자료: USDA, 「Dairy: World Markets and Trade」(2023.12.)

3.3. 원유 수급 전망

- 2024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37만 9천 마리로 전망되며, 착유우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9만 마리로 전망된다.
- 2024년 원유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감소하나 기상 조건과 조사료 수급 여건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전년보다 소폭(0.4%) 증가한 193만 8천 톤으로 전망된다.
- 2033년 원유 생산량은 2025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2023년 대비 4.3% 감소한 185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규모 농가들의 폐업 지속 및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규모화와 전업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사육 마릿수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국내 원유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유제품 수입량은 시장개방 확대로 관세율 인하, 2026년부터 미국과 EU산 유제품(우유, 크림) 무관세 적용, 소비자 선호 다양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수입량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242만 톤으로 전망되며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33년에는 271만 톤으로 전망된다.
- 2024년 기준 1인당 소비가능량은 수입량 증가와 인구 감소로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인 81.9kg으로 전망된다.
- 2023년에 도입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현장에 정착해 가공유 생산이 늘어나는 한편, 생산비 저감을 위한 제도개선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국산 원유 생산 및 수요 기반 확대로 유제품 자급률이 전망치보다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7-34. 원유 생산량과 수입량 전망



주: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표 17-37. 원유 수급 전망

구 분	2023년(p)	전망			
		2024년	2028년	2033년	
사육 마릿수(천 마리)	387	379	361	350	
공급 (천 톤)	이월 재고	72	45	53	51
	국내 생산	1,930	1,938	1,884	1,854
	수입	2,386	2,420	2,577	2,709
	계	4,388	4,403	4,515	4,614
수요 (천 톤)	국내 소비	4,217	4,221	4,329	4,424
	수출	125	126	133	140
	재고	45	55	53	50
	계	4,388	4,403	4,515	4,614
1인당 소비가능량(kg)	81.9	81.9	84.5	87.0	
자급률(%)	45.8	45.9	43.5	41.9	

주 1)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2)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부록

1. 한육우

부표 17-1. 한육우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1,819	1,801	1,713	1,590
2001	1,476	1,507	1,485	1,406
2002	1,371	1,448	1,461	1,410
2003	1,337	1,423	1,464	1,480
2004	1,521	1,627	1,667	1,666
2005	1,654	1,757	1,825	1,819
2006	1,836	1,959	2,021	2,020
2007	2,043	2,179	2,220	2,201
2008	2,241	2,448	2,470	2,430
2009	2,481	2,599	2,641	2,635
2010	2,706	2,889	2,950	2,922
2011	2,881	3,053	3,044	2,950
2012	2,940	3,109	3,143	3,059
2013	2,966	3,064	3,043	2,918
2014	3,083	3,149	3,103	3,028
2015	2,896	2,984	2,996	2,909
2016	2,821	2,966	3,016	2,963
2017	2,885	3,034	3,120	3,020
2018	2,947	3,117	3,168	3,113
2019	3,059	3,231	3,269	3,237
2020	3,197	3,383	3,435	3,395
2021	3,373	3,568	3,623	3,589
2022	3,558	3,734	3,752	3,727
2023	3,632	3,749	3,712	

주 1)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2) 2023년 3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부표 17-2. 한육우 사육 농장수

단위: 천 가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336	326	305	290
2001	267	260	247	235
2002	227	224	218	212
2003	191	190	189	188
2004	189	189	189	189
2005	191	192	193	192
2006	192	192	191	190
2007	190	191	188	184
2008	188	190	186	181
2009	179	177	176	175
2010	176	175	175	172
2011	171	171	168	163
2012	159	157	153	147
2013	142	137	132	124
2014	132	127	123	116
2015	114	111	109	107
2016	105	104	103	102
2017	101	100	100	99
2018	98	97	97	97
2019	96	95	94	94
2020	94	93	93	93
2021	93	94	94	94
2022	93	93	92	92
2023	91	89	88	

주 1)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2) 2023년 3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부표 17-3. 한육우 등급판정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한우			육우
	암소	수소	거세우	
2000	463	318	34	114
2001	289	206	53	548
2002	216	142	88	446
2003	154	149	58	361
2004	124	130	70	324
2005	144	125	122	139
2006	167	153	105	426
2007	212	111	170	492
2008	263	104	220	588
2009	300	100	245	644
2010	263	40	299	91
2011	294	48	376	94
2012	437	57	349	79
2013	511	28	421	64
2014	448	30	443	67
2015	413	25	446	57
2016	354	20	363	64
2017	339	18	385	78
2018	328	17	391	73
2019	341	11	413	69
2020	347	10	406	72
2021	359	8	427	78
2022	412	6	451	83
2023	469	5	455	81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부표 17-4. 소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

구 분	호주	미국	기타	합계
2005	101	-	41	143
2006	137	-	42	179
2007	147	15	41	203
2008	130	53	40	224
2009	117	50	31	198
2010	122	91	33	245
2011	145	107	37	289
2012	124	100	29	254
2013	143	89	25	257
2014	150	105	26	282
2015	164	112	22	299
2016	178	153	32	363
2017	150	169	26	344
2018	167	220	29	416
2019	163	238	26	427
2020	158	229	32	419
2021	160	255	38	453
2022	162	264	51	477
2023	188	230	36	454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표 17-5. 한육우(거세우) 등급별 도매가격

단위: 원/kg

구 분	전체평균	1**등급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육우
2000	10,916	-	12,388	11,454	10,306	8,901	6,453
2001	13,079	-	14,134	13,433	12,709	12,061	7,530
2002	13,733	-	14,810	14,104	13,280	12,521	7,517
2003	16,063	-	17,296	16,649	15,367	12,724	6,959
2004	13,481	13,983	14,512	13,678	12,762	11,182	7,040
2005	14,839	16,296	15,463	14,745	13,825	12,518	9,247
2006	15,712	18,600	16,685	15,564	13,999	11,144	8,943
2007	14,940	17,786	15,854	14,651	13,667	11,983	8,553
2008	14,468	16,940	15,462	14,193	12,800	10,418	7,652
2009	16,962	19,338	17,722	16,614	14,948	12,078	8,969
2010	16,546	20,085	17,756	16,013	13,736	12,102	10,043
2011	13,557	16,561	14,549	13,243	10,945	8,622	7,401
2012	14,750	17,192	15,568	14,249	11,993	9,119	8,921
2013	13,973	16,733	14,660	13,224	11,456	9,355	8,021
2014	14,985	17,289	15,600	14,370	12,890	11,119	8,478
2015	16,855	18,980	17,563	16,121	14,635	12,620	10,562
2016	18,941	21,545	19,318	18,428	16,425	13,773	9,916
2017	17,710	20,142	18,129	16,985	14,621	10,993	8,573
2018	18,735	20,777	19,313	17,925	15,232	11,980	10,615
2019	19,116	21,165	19,780	18,108	15,221	11,817	10,314
2020	21,241	23,231	21,560	20,270	16,566	12,503	11,012
2021	22,667	25,127	22,810	21,272	17,164	12,926	11,999
2022	20,980	23,656	20,771	18,818	15,079	10,463	10,910
2023	18,619	21,257	18,219	16,380	13,088	8,950	9,646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 돼지

부표 17-6. 돼지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7,887	8,126	8,371	8,214
2001	8,198	8,396	8,767	8,720
2002	8,719	8,791	9,033	8,974
2003	9,027	9,051	9,287	9,231
2004	9,006	9,017	9,046	8,908
2005	8,838	8,786	8,993	8,962
2006	9,010	9,032	9,369	9,382
2007	9,345	9,462	9,659	9,606
2008	8,981	9,153	9,284	9,087
2009	9,177	9,044	9,381	9,585
2010	9,768	9,728	9,901	9,881
2011	7,036	7,330	7,783	8,171
2012	8,851	9,433	9,937	9,916
2013	10,107	10,181	10,188	9,912
2014	9,698	9,680	9,966	10,090
2015	9,971	10,018	10,332	10,187
2016	10,315	10,355	10,669	10,367
2017	11,005	11,187	11,493	11,273
2018	11,156	11,304	11,641	11,333
2019	11,200	11,317	11,713	11,280
2020	11,208	11,088	11,365	11,078
2021	11,147	11,150	11,465	11,217
2022	11,169	11,166	11,326	11,124
2023	11,111	11,108	11,398	

주: 2017년부터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표본으로 조사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부표 17-7. 돼지 모든 사육 마릿수

단위: 천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914	936	932	912
2001	910	941	951	955
2002	958	958	956	955
2003	985	985	988	975
2004	962	967	938	935
2005	948	956	965	966
2006	990	999	1,006	1,012
2007	1,006	1,022	1,013	1,004
2008	936	937	919	913
2009	927	916	940	966
2010	988	981	976	976
2011	732	793	835	903
2012	950	969	962	962
2013	973	952	897	895
2014	910	925	925	937
2015	940	948	943	958
2016	968	981	984	974
2017	1,045	1,062	1,052	1,058
2018	1,058	1,069	1,063	1,063
2019	1,063	1,070	1,063	1,026
2020	1,041	1,023	1,010	1,001
2021	1,025	1,041	1,024	1,023
2022	1,024	1,021	1,008	995
2023	1,008	1,014	993	

주: 2017년부터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표본으로 조사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부표 17-8. 돼지 사육 가구수

단위: 가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24,239	24,639	23,511	23,841
2001	22,444	21,251	20,141	19,531
2002	18,641	17,382	16,927	17,437
2003	16,148	15,387	15,468	15,242
2004	13,939	13,581	13,251	13,268
2005	12,227	12,153	12,189	12,290
2006	11,525	11,361	11,448	11,309
2007	10,765	10,546	10,229	9,832
2008	7,929	8,038	7,842	7,681
2009	7,641	7,685	7,837	7,962
2010	7,796	7,908	7,715	7,347
2011	5,705	5,952	6,164	6,347
2012	6,444	6,525	6,404	6,040
2013	6,130	6,067	5,918	5,636
2014	5,441	5,315	5,174	5,177
2015	4,946	4,966	4,973	4,909
2016	4,761	4,666	4,622	4,574
2017	6,387	6,357	6,347	6,313
2018	6,275	6,195	6,196	6,188
2019	6,176	6,160	6,137	6,133
2020	6,192	6,189	6,180	6,078
2021	6,179	6,133	6,084	5,942
2022	5,951	5,894	5,835	5,695
2023	5,822	5,813	5,721	

주: 2017년부터 돼지 이력제 신고자료 기준 표본으로 조사하여 작성됨.
자료: 통계청

부표 17-9. 돼지고기 수입량

단위: 천 톤

구 분	미국	EU	캐나다	칠레	기타	합계
2000	7	54	9	-	26	96
2001	2	34	3	-	14	52
2002	5	48	6	2	10	71
2003	5	28	3	12	12	61
2004	13	41	9	17	28	109
2005	43	42	20	25	43	174
2006	61	49	26	22	52	211
2007	70	98	29	32	18	247
2008	72	81	28	19	13	214
2009	75	57	26	36	15	210
2010	51	65	18	30	16	179
2011	143	112	48	25	43	370
2012	111	72	23	28	43	276
2013	76	47	10	19	32	185
2014	94	84	11	18	66	274
2015	129	110	17	26	76	358
2016	106	99	13	22	78	318
2017	135	101	15	22	97	369
2018	185	127	22	26	104	464
2019	174	101	25	25	97	421
2020	129	70	22	23	67	311
2021	121	157	22	23	10	333
2022	125	238	36	28	14	442
2023	144	157	52	30	20	40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부표 17-10. 돼지고기 가격

단위: 원/kg

구 분	도매가격 (탕박, 제주도 제외)	비육돈 농가수취가격 천원/마리(110kg)	소매가격		
			삼겹살(냉장)	수입 삼겹살 (냉동)	목심
2000	2,197	-	7,770	-	-
2001	2,343	-	8,450	-	-
2002	2,355	-	9,530	-	-
2003	2,189	-	9,700	-	-
2004	3,163	-	11,420	-	-
2005	3,386	-	14,890	-	-
2006	3,276	-	15,360	-	-
2007	2,865	-	14,240	-	-
2008	3,658	-	16,820	-	-
2009	4,050	-	18,240	-	-
2010	3,791	320	16,630	-	-
2011	5,681	465	20,240	-	-
2012	3,717	335	16,780	9,530	-
2013	3,405	301	16,090	9,560	-
2014	4,542	401	19,290	10,200	-
2015	4,585	417	20,100	10,810	-
2016	4,303	389	19,740	10,580	19,190
2017	4,640	417	20,950	10,820	20,700
2018	4,296	368	19,350	10,500	19,270
2019	3,779	285	18,430	10,250	17,930
2020	4,185	353	21,220	10,780	20,320
2021	4,722	398	24,290	13,090	22,970
2022	5,227	441	26,120	14,610	24,340
2023	5,134	433	25,340	14,960	23,460

주: 소매가격은 2022년 4월까지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이며, 5월부터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임.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축산정보센터

3. 젖소

부표 17-11. 젖소 전체 사육 마릿수

단위: 마리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000	536,773	542,518	541,933	543,708
2001	540,173	544,010	550,040	548,176
2002	548,483	545,350	543,161	543,587
2003	551,890	541,340	526,239	518,645
2004	517,031	509,136	503,205	497,261
2005	496,606	490,626	485,429	478,865
2006	481,785	471,414	467,602	464,056
2007	460,578	456,386	455,179	453,403
2008	449,561	445,213	444,748	445,754
2009	447,793	439,191	437,858	444,648
2010	449,350	431,928	429,368	429,547
2011	396,466	402,528	403,828	403,689
2012	403,922	409,970	417,306	420,113
2013	419,509	418,795	422,033	424,202
2014	436,739	436,061	441,849	444,552
2015	438,968	432,572	430,289	428,311
2016	424,676	419,768	420,820	417,937
2017	415,831	413,843	411,378	408,830
2018	408,046	404,525	406,977	407,894
2019	407,126	400,799	404,004	408,135
2020	409,223	405,828	408,132	409,790
2021	406,013	399,680	399,745	400,798
2022	396,723	387,996	389,726	389,860
2023	384,873	382,642	385,699	

주 1) 2014년 이후 자료는 축산물 이력제 자료임.

2) 2023년 3분기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부표 17-12. 원유 수급 동향

단위: 천 톤

구 분	공급계				수요계			
	이월재고	국내생산	수입		국내소비	수출	재고	
2000	44	2,253	640	2,936	2,803	8	124	2,936
2001	124	2,339	653	3,116	3,026	20	70	3,116
2002	70	2,537	646	3,253	3,060	32	161	3,253
2003	161	2,366	604	3,131	2,990	47	94	3,131
2004	94	2,255	842	3,192	3,074	49	68	3,192
2005	68	2,229	898	3,195	3,028	50	116	3,195
2006	116	2,176	882	3,175	3,070	52	53	3,175
2007	53	2,188	968	3,209	3,054	47	107	3,209
2008	107	2,139	885	3,131	2,980	55	96	3,131
2009	96	2,110	959	3,165	3,036	74	55	3,165
2010	55	2,073	1,135	3,262	3,171	78	13	3,262
2011	13	1,889	1,713	3,614	3,518	78	18	3,614
2012	18	2,111	1,414	3,544	3,359	93	92	3,544
2013	92	2,093	1,586	3,771	3,582	96	93	3,771
2014	93	2,214	1,683	3,990	3,646	111	233	3,990
2015	233	2,168	1,788	4,189	3,834	102	253	4,189
2016	253	2,070	1,832	4,155	3,914	109	132	4,155
2017	132	2,058	2,116	4,306	4,092	107	108	4,306
2018	108	2,041	2,198	4,347	4,138	126	82	4,347
2019	82	2,049	2,304	4,436	4,228	119	89	4,436
2020	89	2,089	2,434	4,611	4,345	125	141	4,611
2021	141	2,034	2,512	4,688	4,449	131	108	4,688
2022	108	1,975	2,525	4,609	4,410	126	72	4,608

주 1) 수입 및 수출은 수출입 유제품을 원유로 환산한 양임.

2) 재고는 월말 분유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임.

자료: 낙농진흥회